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개인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김택호

개인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순 은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
김 택 호

김택호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정 용 덕 (인)
부 위 원 장	고 길 곤 (인)
위 원	김 순 은 (인)

국 문 초 록

적당한 수준의 불신은 정부에게 자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불신은 정부의 정책집행 시간을 지연시키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성공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어떤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일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신뢰는 정책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여 정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하며, 정책과정에서 국민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고, 부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한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심리적 요소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영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은 전통적인 경제적 자본,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자신감(confidence), 낙관주의(optimism), 희망(hope), 복원력(resilience)으로 구성된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타자와의 관계를 넘어 정부를 비롯한 제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연구는 예를 찾기가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심리자본과 정부신뢰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또한 동시에 네트워크,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이 정부신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을 이용한다. 이 조사는 공간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2008년 11월 현재 서울시 거주민 7000명 중 불완전하게 기입한 설문지 자료 및 만 18세 이하 응답자 자료를 제외한 총 6,304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T-tset,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다.

분석결과 첫째, 심리자본 중 자신감과 복원력이 높을수록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신감과 복원력의 회귀계수 값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이것이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계형 네트워크의 경우 중앙정부신뢰와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계형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러한 연유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결속형 네트워크가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결속형 네트워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유의하진 않았지만 결속형 네트워크 참여도 중앙정부 신뢰에 미세하지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속형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실증한 다수의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넷째, 대인신뢰에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고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한편,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

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섯째, 그 밖의 통제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정부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왔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방정부(서울특별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섯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차이는 통제변수에서 성별과 교육정도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서울에 국한해 있었기 때문에 오는 한계이므로 향후 전국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2010년 서울시 복지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관한 신뢰가 서울 지역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둘째, 측정과 관련하여 사용한 설문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기존에 있는 서베이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인신뢰나 상호 호혜적 규범, 심리자본과 관련된 세밀한 측정에 한계가 존재했다.

셋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심리자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라면 사회자본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심리자본과 정부신뢰를 포함한 기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사회자본, 심리자본, 정부신뢰, 신뢰, 네트워크

학번 : 2011-23897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방법	4
제 3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5
제 1 절 이론적 논의	5
1. 정부신뢰	5
1) 신뢰의 개념	5
2) 신뢰의 유형분류	7
3) 정부신뢰	8
4) 정부신뢰 영향요인	10
가. 정책결과 및 성과	10
나. 정책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부패	11
다. 정치적 효능감	12
라. 참여	13
마. 자기표현가치(self-expression values)	14
바. 대통령과 의회 등 타 기관에 대한 신뢰	14
사. 언론과 종교	15
아. 인구통계학적 요인	15
5)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	16

2. 사회자본	17
1) 사회자본의 개념	17
2) 사회자본의 유용성	24
3) 사회자본의 조작화 및 개념적 정의	26
가. 사회자본 측정의 어려움	26
나. 한국행정학계의 사회자본 측정	27
다. 사회자본 구성요소	40
라. 사회자본 구성개념 간 관계	44
마. 본 연구의 측정방식	45
3. 심리자본	46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49
1. 사회자본 관련 선행연구 경향	49
2. 심리자본 관련 선행연구 경향	58
3. 정부신뢰 관련 선행연구 경향	62
4.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과 정부신뢰와의 관계	68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69
제 1 절 분석모형 및 가설	69
1. 분석모형	69
2. 가설설정	70
제 2 절 변수선정 및 조작화	72
1. 종속변수	72
2. 독립변수	73
3. 통제변수	75
제 3 절 분석자료 및 표본의 특성	77
제 4 절 분석방법	79

제 4 장 분석결과	80
제 1 절 기초통계분석	80
1. 각 기관별 신뢰도	80
2. 성별에 따른 정부신뢰 정도	82
3. 연령에 따른 정부신뢰 정도	83
제 2 절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과 중앙정부 신뢰와의 관계	85
제 3 절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과 지방정부 신뢰와의 관계	89
 제 5 장 결 론	 94
제 1 절 연구 결과의 요약	94
제 2 절 이론적 · 실천적 함의	95
제 3 절 연구의 한계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19

표 목차

<표 1> 부르디외의 사회자본과 콜만 사회자본의 비교	19
<표 2> 결속형 사회자본과 연계형 사회자본 비교	21
<표 3> 사회자본의 조작화	31
<표 4> 심리자본과 타 개념의 비교	48
<표 5> 사회자본 연구 경향	52
<표 6> 심리자본 연구경향	60
<표 7> 정부신뢰 연구경향	65
<표 8> 변수 및 척도	76
<표 9>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8
<표 10> 각 기관별 신뢰 정도	80
<표 11> 성별에 따른 정부 신뢰	82
<표 12> 연령에 따른 정부신뢰	83
<표 13> 중앙정부 신뢰 상관관계 분석	85
<표 14> 중앙정부 신뢰 회귀분석	86
<표 15> 지방정부 신뢰 상관관계 분석	89
<표 16> 지방정부 신뢰 회귀분석	90
<표 17> 연구결과 요약	92

그림 목차

<그림 1> 사회자본 개념의 이론적 계보	23
<그림 2> 분석모형	69

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정권을 막론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부의 수장들은 정부의 신뢰회복을 중시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12월 20일 대통령 수락 연설에서 “효율과 쇄신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ی겠다.” 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6일 제 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고 신뢰의 자본을 쌓겠다.” 고 선언했다. 그녀의 취임사에서 ‘신뢰’라는 단어는 박근혜 행정부의 핵심 개념인 ‘창조 경제’와 더불어 총 8번 등장하는데, 이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 정부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신뢰는 왜 중요한가? 정부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 차원에서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성의 측면에서 정부 신뢰는 정책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여 정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다(Miller, 1974 ; Brehm & Rhan, 1997). 시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커다란 힘을 받는다. 둘째, 정책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필요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정부신뢰는 정책과정에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 순응을 유도한다(Gamson, 1968 ; Levi, 1998).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정부신뢰가 낮은 지역은 투자가치가 낮아져 경제성장이 위축된다(Zak&Knack, 2001). 셋째, 형평성의 측면에서 정부신뢰의 축적 정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비합법적인 참여가 늘어나 부패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부패는 정책수행과정의 공정한 룰을 무너뜨려 사회적 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You & Khagram, 2005). 다시 말해, 정부 신

되는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형평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2013년 2월 21일 발표한 ‘사회통합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정부를 불신한다는 의견이 46%에 이른 반면 정부를 신뢰한다는 의견은 15.8%에 불과했다. 이는 2012년 41.8%에서 1년 사이 5.2%나 늘어난 수치로써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민주제도의 공고화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자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인데, 정부에 대한 불신은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정부존립의 기초이자 성공적인 국가경영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정부신뢰에 어떤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일은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원인 중 사회자본과 심리자본에 주목한다. 사회 자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지만 “물적, 인적자원과는 구별되는 사회적 자원으로 호혜적인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남궁근, 2008). 퍼트남(2000)에 의하면 사회 자본은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연계형(bridging social capital)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배타적,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지닌 반면, 후자는 개방성과 외부 지향적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정부신뢰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동창회, 종친회 참여와 같은 결속형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람은 타 집단에 대해 배타적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동호회나 자선단체와 같은 연계형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람은 다양한 이해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사고의 수용성이 높아져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순응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이와는 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속형 사회자본이 풍부할수록 그가 속한 집단이 가지는 정치적 성향을 매개변수로 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질 수도 있다. 만약 사회자본 유형 간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라는 정부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같은 조건에서 지방정부는 신뢰하는데, 중앙정부는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필요성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학과 심리학을 중심으로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심리자본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리자본(psychological capital)은 전통적인 경제적 자본,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Luthans외, 2007)으로 자신감(confidence), 낙관주의(optimism), 희망(hope), 복원력(resilience)으로 구성된다.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타인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심리자본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심리자본은 개인이 본인 스스로를 얼마나 신뢰하는가와 관련 있다. 개인이 본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타인과 제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계에서 긍정조직행태 주요 요인 간 관계를 연구한 김동철 외(2012)를 제외하고는 심리자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제 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심리자본과 정부신뢰와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우려고 한다. 또한 동시에 네트워크,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으로 구성되는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시 말해, 연계형 네트워크와 결속형 네트워크의 차이에 따른 정부 수준별 신뢰의 차별적 효과와 심리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신뢰와 사회 자본, 심리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그 후,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을 기초로 하여 사회 자본을 연계형과 결속형 네트워크, 대인신뢰, 호혜적 규범으로 구분한 다음, 이들 각각이 정부신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심리자본의 각 요소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이때 정부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별하여 정부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본다.

제 3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논문은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08년 11월 현재 서울시 거주민으로 표본크기는

7000명 중 모든 항목에 불완전하게 기입한 설문지 자료 및 만 18세 이하 응답자 자료를 제외하고 총 6,30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제 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절 이론적 논의

1. 정부신뢰

1) 신뢰의 개념

정부신뢰가 무엇인지에 논의하기에 앞서 “신뢰” 개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Rotter(1967)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이 약속한 것에 대해 본인이 믿어도 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를 신뢰라고 정의하였고, Zucker(1986)은 ‘교환 당사 간 공유되는 관계에 대한 일정한 기대의 집합’이라고 정의했다. Rousseau(1998)는 신뢰를 ‘상대방이 긍정적인 의도나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려는 심리적 상태’라고 보았다. 한편, Coleman(1990)은 신뢰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갚을지를 알기 전에 상대방과의 사회적 교환관계에 개입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신뢰란 “①상대방이 자신에게 중요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에서, ②그를 감독 또는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③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④기꺼이 수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Mayer, Davis & Shoorman(1995) ; 박통희, 1999 재인용).

하지만 신뢰 개념이 새롭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Williamson(1993)은 상대방의 행동을 기꺼이 감수하려는 심리적 이면에는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이 있고, 신뢰라는 개념은 위험감수(risk-taking)

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신뢰는 위험 감수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불신은 위험 회피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뢰는 경제인의 관점에서 위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이 나오는가에 대한 주관적 확률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통희(1999)는 ①위험감수의 원인은 다양하며, ②신뢰는 객관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 취약함을 수용하는데 반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 위험 감수는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행동이며, ③신뢰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기댓값이 객관적 기댓값 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불리함의 개연성을 수용하며, ④극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주관적 기대확률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위험”개념을 사용하여 신뢰로 지칭되는 현상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을 신뢰와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뢰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신뢰를 경제학적 위험과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한편, 미시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신뢰와 불신이 동일차원의 연속적 개념이냐, 아니면 상호 독립적 현상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Luhmann, 1979 ; Priester & Perry, 1996). 신뢰를 불신과 구별하는 견해에 따르면 낮은 신뢰는 “불신이 아니라 높은 신중성”이다(박통희, 1999). 신뢰를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정의하고, 불신은 부정적 기대로 정의하려는 시도 또한 존재한다(Lewicki 외, 1996).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를 따라 불신을 ‘신뢰의 부재’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신뢰의 유형분류

신뢰를 분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있는 구분에 따르면 크게 대인신뢰와 제도(기관)신뢰로 나눌 수 있다(이수인, 2010).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견해(Levi, 1996; Montero, 1997; Uslanda, 2001)와 대인신뢰와 정부 신뢰 간 관계가 없다는 견해(Kolankiewicz, 1994; Whiteley & Seyd, 1997)가 상존하는 것을 볼 때, 대인신뢰와 기관신뢰는 통합된 개념보다는 분리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대인신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신뢰인 특정신뢰(particular trust)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뢰인 일반신뢰(generalized trust)로 구분된다(Uslander, 1999; Levi, 1998; Petit, 1998; 박통희, 2004). 일반신뢰와 특정신뢰를 개념적으로 분리시켜야할 필요에 대해 박희봉 외(2003)은 “우리나라와 같이 사적신뢰를 중시하는 문화에 있어서 친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대한 신뢰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일반신뢰는 “합리적 계산에 기초하지 않으며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즉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기초한 신뢰”이다(박종민 외, 2006). 다시 말해 일반신뢰는 ‘잘 알지 못하는 타자가 선, 정직성, 상호성과 같은 인격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회 구성원들의 동료시민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 태도’이다(Newton, 1999). 반면 특정신뢰는 하나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집단에 대한 신뢰, 개인적 연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박통희, 2006). 특정신뢰와 일반신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정신뢰가 일반신뢰의 형성 기회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맥락의 견해(후쿠야마, 1995; Granovetter; 1973)가 존재하는 반면 오히려 특정신뢰와 일반신뢰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는 실증연구(박통희, 1996)도 존재한다.

한편, 제도 신뢰는 “한 사회의 기본적 게임의 규칙에 대해 공유된 신뢰로서 제도화된 질서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 내 제도나 규범, 더 나아가서는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박병진, 2007). 제도신뢰는 특정한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신뢰, 정부 신뢰, 정치제도 신뢰 등으로 나타내어진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제도신뢰 중 정부신뢰이다.

3) 정부신뢰

그렇다면 정부신뢰란 무엇인가? 정부신뢰는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이승중, 2010),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박천오 · 박경호, 2001),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의 행동에 대하여 취하는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 지지”(손호중 · 채원호, 2005), “정부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Miller, 1974) 등 다양하게 정의된다.

정부신뢰를 개념적으로 논의할 때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정부’를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치체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를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등 정부 지도자들로 볼 수도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포함하는 정치체제로 볼 수도 있다(박종민 외, 2010). 즉, ‘정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부신뢰의 구체적 대상이 당국(authorities)일수도 있고, 통치체제(regime)일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정부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대

답이 통치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지, 집권정부 혹은 정부지도자들에 대한 신뢰인 당국에 대한 정향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낳는다(Miller, 1974 ; Citrin, 1974).

두 번째 쟁점은 정부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정부의 범위를 행정부에 한정하는 연구(Citrin & Likes, 2001)가 있는가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정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Nye et al., 1997; Wong et al., 2009), 두 경우를 구별해서 각각 실증하는 연구(배귀희 외, 2009)가 상존한다. 생각건대, 한국에서는 “정부”라는 용어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괄하기 보다는 행정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Finer, 1970; 박종민 외, 2010). 따라서 정부신뢰를 설문을 통해 측정하는 경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최대한 협소하게 해석하여 ‘행정부에 대한 신뢰’로 한정하기로 한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가 같은 정당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사법부의 주요 기관의 임명권도 행정부의 수반에게 있으므로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포괄적 의미에서 정부신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이수인, 2010).

세 번째 쟁점은 정부신뢰의 주체와 관련된 일련의 논의들이다. 정부신뢰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한정하여 보는 견해와 이에 더하여 ‘공직자들 스스로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여 ‘외부신뢰’와 ‘내부신뢰’로 구분하는 견해(김현구 외, 2009)가 있다.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구분은 정부신뢰 개념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인식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 신뢰 측면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였다.

4) 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정부 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책결과 및 성과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 수 있다 (Miller, 1974; King, 1997; Mishler and Rose, 2001). Miller(1974)에 의하면 정부신뢰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선호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정부성고가 높으면 정부신뢰가 높아진다(Mishler & Rose, 2001; Levi and Stoker, 2000; Newton, 1999; Turner & Martz, 1997;). 정부가 능력이 없거나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박종민, 외 2007).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성과가 신뢰자의 주관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Orren(1997)에 의하면 불신은 ‘기대하는 성과와 실제 성과의 차이’이다. 그러한 연유로 많은 연구들은 정부신뢰를 측정할 때 성과 자체 보다는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지표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Van de Walle, 2004; Kim, 2010). 예를 들면, 다수의 연구들은 가계경제에 대한 ‘만족감’과 같이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과 관련된 지표를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측정한다.(Kelly, 2003; Silver, 1987).

나. 정책과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부패

정책과정의 공정성 역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ultler, 1991; 박통희, 2000; 이종수, 2001, 손호중, 2005). 공정성은 일반적으로 크게 분배공정성(distributive justice)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로 구분되어진다. 분배공정성은 Adams(1965)의 형평성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과 결과물의 비율을 상대방의 투입 대비 결과물을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분배공정성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배 공정성은 조직구성원의 직무태도나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reengerg, 1990). 한편 절차적 공정성은 주로 의사결정과정의 절차에 관심을 갖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결과 자체를 중요시하듯,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절차도 중요하다(Thibaut 외, 1975). Adams의 형평성이론이 불공정성에 대한 반응을 명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했다(Cropanzano & Greenberg, 1997).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이 통계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지다가 최근에는 상호작용 공정성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Moorman, 1991). Bies & Moag(1986)는 분배가 결정되거나 절차가 시행될 때 조직구성원 간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공정성에 대한 지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 공정성(interactional justice)이다.

정책과정의 투명성 역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Stephan Grimmelikhuijsen, Gregory Porumbescu, Boram Hong and Tobin Im, 2013; Jacobs and Dukhong, 2010; Bok, 1997). 투명성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에 의하면, 정책과정에 대한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책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결국 시민들은 정부

를 신뢰하게 된다(Hood, 2006). 반면 투명성이 오히려 불확실성과 혼란을 유도하기 때문에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O'Neill, 2002).

한편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Seligson, 2002; Della Porta, 2000; Miller and Listhaug, 1999). Della Porta(2000)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에서의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불신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Seligson(2002)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

다. 정치적 효능감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으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정치적 효능감이다(Owen & Dennis, 2001). 정치적 효능감은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과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으로 나눌 수 있다(Abramsom, 1983). 내적효능감은 시민들이 정치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참여할만한 능력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이고, 외적효능감은 시민들이 정부 혹은 정치체제가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신념인데, 정치적 효능감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한다(Avery, 2008).

라. 참여(Participation)

정책의 수혜자 내지 고객에 머물렀던 시민의 위상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격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성(responsi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Franklin and Edon, 2004; Nelson and Wright, 1995). 참여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져 정부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견해(Citrin and Muste, 1999; Yang and Holzer, 2006; March & Olsen, 1989; Norris, 1999; Kim, 2010)가 있는 반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정부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Hetherington, 1998; 장수찬, 2002).

최근에는 고전적 의미의 참여뿐만 아니라 E-participation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몇몇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정부 웹 사이트의 이용이 정부신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orgeson, Van Amburg and Mithas, 2011; Welch, Hinnant, and Moon, 2005; Kim and Lee, 2012). 특히 Kim and Lee(2012)에 의하면 인터넷 참여자의 정부 투명성에 대한 평가가 지역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자기표현가치(self-expression values)

한편, 자기 표현 가치(self-expression values)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Kim, 2010; Andrain and Smith, 2006; Inglehart, 1997). '자기표현 가치'란 외적인 구속이나 지도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조건에서 형성된 자기만의 선호를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를 말한다. Kim(2010)은 아시아 바로미터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표현 가치가 (집회·결사의 권리에 대한 만족감과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만족감으로 조작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했는데, 2003년 조사의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집회·결사의 권리에 대한 만족감이 지방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바. 대통령과 의회 등 타 기관에 대한 신뢰

Citrin(1974)는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책자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정부신뢰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Miller(1974)의 주장과는 대비되는 견해로써 정부불신은 대통령 등 사회지도층의 부도덕과 무능에서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 전대성 외(2013)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정부기관이나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높다(Brewer & Sigelman, 2002).

사. 언론과 종교

언론의 부정적 태도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Jamieson, 1992; Patterson, 1993). 한편 이승중(2010)에 의하면 종교가입과 종교참여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신뢰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퍼트남(1993)은 교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시민성 측면에서 역의 관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아. 인구통계학적 요인

우선 연령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신뢰가 낮아진다는 견해(Citrin & Luks, 2001; Hethrington, 1998)가 있는 반면 서로 관계가 없다는 견해(Michelson, 2003)이 공존한다. 성별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견해(Citrin & Luks, 2001)와 남성이 여성보다 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견해(Hethrington, 1998)가 상존한다.

5)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

중앙정부 신뢰와 지방정부 신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기존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중앙정부의 신뢰가 떨어질수록 지방정부의 신뢰도 함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Rahn & Rudolph, 2006 ; Uslaner, 2001)가 있는 반면, 중앙정부 불신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승한다는 연구도 존재(Hetherington & Nugent, 2001)한다.

한편, 중앙정부 신뢰의 영향요인과 지방정부 신뢰의 영향요인이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Uslaner(2001)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Rahn and Rudolph(2002)는 지방정부의 경우 커뮤니티의 질이나 커뮤니티의 동질성이 부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Jennings(1998)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성도가 중앙정부 신뢰에 영향을 준 반면, 지방정부 신뢰에는 책임성, 접근성, 반응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정부 신뢰는 중앙정부 신뢰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지방정부 신뢰에 영향을 주는 독특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지방 정부신뢰에 대해 다룬 국내 문헌은 정광호 외(2011)과 현승숙·이승중(2007)을 제외하곤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2. 사회자본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이 풍부하면 할수록 다양한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와 시민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져 정부의 반응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킴에 따라 긍정적인 제도적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된다(Traits 2006). 따라서 사회자본의 축적 정도는 시민의 발전을 암시하는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이숙종 외, 2010)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자원의 일부가 된다. 또한 사회 자본은 행위자들 간의 신뢰를 증대시켜 집합적 행위(collective action)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한다(Ahn & Ostrom, 2003 ; 이숙종 외, 2008).

그렇다면 사회자본이란 무엇인가? 사회자본 개념은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체계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Putnam에 의해 확장되면서 대중화 되었다(이현우 외 2009).

학술적인 용어로 사회자본 개념은 부르디외가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남궁근, 2007). 부르디외(Bourdieu, 1983)는 사회자본을 “개인의 그룹 내 멤버쉽 또는 제도화된 네트워크의 소유와 연결되는 지속적인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했다. 그가 사회자본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경제자본, 문화자본과 별도로 엘리트 계급이 사회적 자본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연결망도 결국은 경제적 자본의 변형되고 위장된 형태로 본 것이다. 따라서 사회자본도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이전되고, 결국 자본이 축적되면

서 계급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의 양은 그가 가진 네트워크의 크기와 그 연결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상징적 자본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Bourdieu, 1986).

이와 대조적으로 콜만(Coleman, 1998)은 사회자본이 행위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구조 내의 행위자의 행동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교육적 성취와 사회적 불평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자본 개념을 사용했는데, 교육정책에서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사회자본을 구분하고, 사회자본이 교육의 성취를 이룩하는데 훨씬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쉽게 설명해서, 콜만의 사회자본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을 의미하는데(Coleman, 1998), 이는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 선택론의 이론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김상준, 2004).

이론적 계보를 따지자면 콜만이 대표하고 있는 사회자본 개념은 신고전파의 한계효용이론을 인간관계와 사회제도에 적용시킨 신희용주의 또는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비롯한 것이고,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개념은 마르크스-베버의 이론체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김상준, 2004 재인용).

콜만과 부르디외의 사회자본 개념 김상준(2004)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부르디외의 사회자본과 콜만 사회자본의 비교

부르디외의 사회적 자본	콜만의 사회적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르디외의 문화적 자본(cultural capital) 개념과 연관성이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슨, 슐츠, 베커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개념과 연관성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르크스주의와 베버이론과 연관성 높음 • 자본주의 사회관계에 대한 비판이 내재되어 있음 →현대사회의 계급적 차등이 문화적, 교육적 가치의 차등적 전수를 통해 재생산 된다고 생각 • 사회적 자본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전학파의 한계효용 이론을 인간 관계와 사회제도에 도입시킨 신호용주의와 연관성이 큼 •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적자원이 가지는 가치에 주목함 • 인적자원과 사회적 자본을 구분 하고, 사회자본이 교육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봄

한편, 퍼트남(1993)은 콜만의 영향을 받아 사회 자본을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등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부르디외가 사회자본을 개인적 속성으로 본 반면 퍼트남은 거시적 측면에서 특정 지역 공동체 또는 국가사회의 특성으로 파악한다(남궁근, 2007).

그는 Making democracy work(1993)에서 이태리 북부가 남부보다 정치발전이 더 이루어진 이유를 사회자본의 차이로 규정하였다. 이후 그는 Bowling Alone(2000)에서 미국의 사회자본 감소를 지적하면서, 교회관련 단체, 노동조합, 사친회, 시민단체 등에서의 참여자 감소와 볼링인구 추세변화를 토대로 사회자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세대 차이를 언급했다. 그

에 따르면, 시민적 세대와 탈 시민적 세대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은 TV의 도입과 시청시간의 증가였다.

퍼트남의 사회자본 개념은 후속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지만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들 비판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회 자본은 다양한 형태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Portes(1998)에 의하면, 사회 자본은 외부인 배척, 구성원들의 과도한 요구, 개인의 자유의 제약 및 규범의 비속화시키는 부정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퍼트남이 이탈리아 남부의 정치발전 저해요소로 지적한 마피아 역시 사회자본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퍼트남은 사회 자본을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과 연계형(bridging) 사회 자본으로 구분하였다(Putnam, 2000).

퍼트남의 결속형, 연계형 사회자본의 구분은 Newton(1999)의 구분과도 유사하다. Newton(1999)는 개인적 관계에 의거한 신뢰를 “두터운 신뢰(thick trust)”,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신뢰를 “얇은 신뢰(thin trust)”라고 불렀는데, “두터운 신뢰”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얇은 신뢰”는 연계형 사회자본과 대비된다.

그렇다면 두 사회자본의 차이는 무엇인가? Putnam(2000)에 의하면, 결속형 사회자본¹⁾은 본질적으로 배타적,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가진다. 예를 들자면,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계와 같은 결사체에 참여함으로써 결속형 사회 자본을 높일 수 있다. 결속형 사회 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충성심을 강화시켜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획득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연대의식을 결집시키는 데 유리하지만 타 집단에 대한 강한 배타성 및 적대감을 증대시키는 단점이 있다.

1) Putnam은 Bowling alone(2000)에서 결속형 사회자본의 예로 같은 인종에게만 자선과 구호를 벌이는 단체, 교회에 기반을 둔 여성들의 독서회, 컨트리 클럽을 들었고, 연계형 사회자본의 예로 민권운동, 많은 청년 봉사단체, 초교파적 종교단체를 언급했다.

반면 연계형 사회 자본은 개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선단체나 동호회, 직업과 관련된 협회 등을 참여함으로써 이 유형의 사회 자본을 높일 수 있다. 연계형 사회 자본은 구성원들 간 약간 결속에 기반 하지만 타 집단과 접촉 시 포용력이 큰 장점이 있다. 즉 연계형 사회 자본은 외부세계와의 정보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강소랑 외, 2012). 간단히 말해 결속형 사회 자본은 일종의 사회학적 강력접착제 역할을 하고, 연계형 사회 자본은 사회학적 윤활유 역할을 한다(Putnam, 2000).

Granovetta(1973)가 직장을 구하거나 정치적 연대를 추구하는데, ‘약한 연대(weak tie)’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는 정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 즉 ‘강한 연대(strong tie)’를 맺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속형 사회 자본과 연계형 사회 자본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결속형 사회 자본과 연계형 사회 자본 비교

결속형 사회 자본	연계형 사회 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임 ●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동질성과 충성심을 강화시켜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 획득 ● 특수한 상호 호혜성과 연대의식을 강화 ● ‘당장 무엇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단기적이고 특수한 이익 추구 ● 타 집단에 대한 강한 적대감 때문에 과별주의적이고 자기생존 중심으로 변모할 가능성 존재 ● 접착제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지님 ● 외부적 자산과 정보공유 및 확산을 풍부하게 해줌 ● 외부 세계와의 정보 채널 역할을 함 ● 타집단과 접촉시 포용력이 큼 ● ‘앞으로 나아가는 것’ 중시 ●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선(善) 추구 ● 윤활유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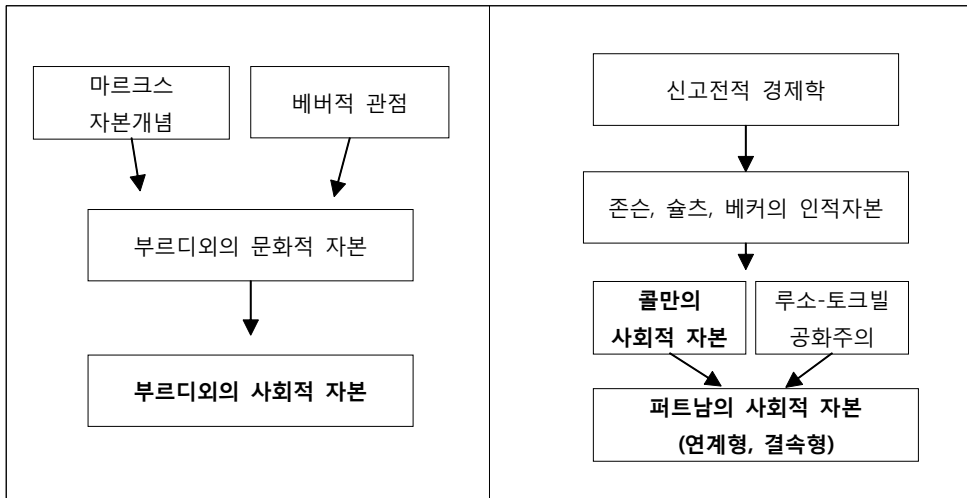
한편 Fukuyama와 Ostrom은 Putnam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사회 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Fukuyama(1995)의 사회자본 개념은 참여를 강조한 Putnam(2000)의 설명과 달리 신뢰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는 사회 자본을 ‘특정사회에서 신뢰의 확산을 통해 생기는 능력’으로 정의하면서,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한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문화적 특성인 신뢰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Fukuyama, 1995). 그에 따르면, 일본과 독일, 미국은 강한 공동체적 연대를 가진 고신뢰 사회이고, 한국과 중국은 공동체적 연대가 무너진 저신뢰 사회인데, 이러한 차이가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낳았다는 것이다.

반면 Ostrom(2003)은 사회 자본을 집단행동과 연결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사회자본과 집단행동을 연계하는 핵심적 요소로 신뢰(trust)를 강조하고 있다. 즉 신용도(trustworthiness), 네트워크, 제도가 신뢰를 매개로 집단행동을 야기 시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신뢰는 사회적 자본과 집단행동을 연결하는 맥락적 변수(contextual variables)의 역할을 한다.

사회자본 개념을 인지적(cognitive) 측면과 구조적(structural)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Grootaert and Bastelater, 2002). Grootaert와 Bastelater(2002)에 의하면 구조적 사회자본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서 네트워크, 결사체 등을 나타내는 반면, 인지적 사회자본은 보이지 않는 주관적인 요소로서 공유된 가치, 호혜성, 신뢰 등을 의미한다(이숙중 외, 2008). 퍼트남의 정의와 결부지어 생각한다면 신뢰와 호혜적 규범은 인지적 사회자본, 네트워크는 구조적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사회자본의 개념의 이론적 계보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사회자본 개념의 이론적 계보



2) 사회자본의 유용성

그렇다면 사회자본의 유용성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사회 자본은 왜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자본은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Putnam, 2000; Ahn & Ostrom, 2003). 사회 자본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도치 않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외부경제). 예컨대, 신뢰가 풍부한 사회라면 우리는 도서관에서 옆 사람이 내 노트북을 훔쳐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즉 노트북을 지키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온다거나 밥을 먹으로 다녀올 수 있다. 집단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보장하는 힘을 갖춘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죄수의 딜레마, 무임승차 문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사회 자본은 정부의 정책과 규제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을 줄여준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자들의 순응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값비싼 매커니즘을 설정해야 하는데, 사회자본은 이러한 비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사회 자본은 시민들을 ‘세련된 정치 소비자(sophisticated consumers of politics)’로 만든다(Boix 외, 1998).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보면 시민들은 공적인 일과 정치적 이슈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생기고,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토크빌이 말했던 시민성(civic virtue)를 향상시켜

준다. “내가 어떻게 부유해 질 수 있는가?”와 같은 개인적인 관심에서 “어떻게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향상시킬 것인가?”와 같은 커뮤니티적인 관심으로 사람들을 옮겨가게 함으로써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증진시킨다(Boix 외, 1998).

다섯째, 사회자본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Fukuyama(1995)는 신뢰와 협력이 국민경제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고, Olsen(1982) 또한 수평적 네트워크와 경제성과 간의 긍정적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3) 사회자본의 조작화 및 개념적 정의

가. 사회자본 측정의 어려움

사회자본 개념은 그 개념적 포괄성과 다양한 적용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사회과학계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Lin, Cook and Burt, 2008). 하지만 이러한 연유로 사회자본 개념이 과연 새로운 개념인지, 생산적인지, 유용한지, 사회과학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Shuller et al., 2000). 즉, 사회자본으로 담고자 하는 영역이 너무 많다 것이 문제이다.

사회자본이 가진 이념적 포괄성은 조작적 정의의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Putnam(2000)의 정의에 의하면 사회 자본은 “신뢰,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이다. 하지만 그가 미국 50개 주의 사회 자본 측정하는데 사용한 14개의 지표²⁾를 보면 전년도 클럽모임 참석자, 단체 회원수, 선거 투표율, 비영리 단체 수 등 참여의 측면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Putnam은 사회 자본을 그의 정의와는 달리 결사체 참여 정도로 단순화 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측정방식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결사체 가입률은 사회자본 구성개념 중 네트워크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신뢰나 규범에 대한 부분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Putnam(2000)의 사회 자본 지수(Social Capital Index)는 다음의 지표로 구성된다. ①전년도 지역사회 단체의 위원으로 봉사(%) ②전년도 클럽이나 단체의 간부로 봉사(%), ③인구 1000명당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④전년도 클럽 모임의 평균 참석자, ⑤단체 회원의 평균 수, ⑥대통령 선거 투표율, ⑦전년도 타운 혹은 학교 업무 관련 공공회의 참석, ⑧인구 1000명당 비영리 단체 회원수, ⑨전년도 공동체 프로젝트에 동참한 평균 횟수, ⑩전년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평균 횟수, ⑪“나는 친구들의 방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한다.”에 동의, ⑫전년도에 집에서 손님이나 친구를 대접한 평균횟수, ⑬“대부분의 사람은 신뢰 할 수 있다.”에 동의 ⑭“대부분의 사람은 정직하다.”에 동의

나. 한국행정학계의 사회자본 측정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연 한국행정학계는 사회 자본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실제로 살펴보았다. 2000년부터 2013년 8월까지³⁾ 행정학계의 대표적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행정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행정논총, 정부학 연구, 지방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행정논집,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지방정부연구, 한국행정연구 등 13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⁴⁾ 69편 중 사례연구와 시론적 연구를 제외한 경험적 연구 54편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가 연구마다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54편의 논문 중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나 신뢰로 한정하여 최협의로 측정한 연구가 6편, 협의로 보아 네트워크와 신뢰 또는 신뢰와 기타요소로 측정한 연구가 7편,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는 광의의 연구가 20편,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에 더하여 기타 참여나 공정성 등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최광의 연구가 13편 존재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자본을 네트워크나 신뢰로 한정하여 최협의로 측정하는 연구가 6편 있었다(강소랑 외, 2012; 최연태, 2012; 이숙중 외, 2008; 배귀희 외, 2006; 김형빈 외, 2010). 최협의로 사회자본을 측정할 경우 사회자본의 신뢰나 네트워크와 같은 특정한 측면이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문

3) 2000년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Putnam의 Bowling alone이 2000년 출간된 이후 국내 행정학계에 사회자본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4) '사회자본'으로 검색한 결과 2000년 이후 한국행정학회보 9편, 한국정책학회보 5편, 행정논총 4편, 정부학연구 5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7편, 지방행정연구 8편, 지방정부연구 15편, 한국행정연구 3편, 한국정책과학학회보 7편, 한국행정논집 6편 총 69편의 논문이 존재하였다.

제가 있다. 먼저 네트워크에 국한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었다. 강소량 외(2012)는 가족 관계망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자본을 관계망의 형태, 상호작용 빈도, 상호작용 내용으로 조작화 하여 측정하였는데 이렇게 측정할 경우 네트워크 측면은 측정할 수 있으나 신뢰나 상호 호혜적 규범의 측면은 측정하기 어렵다. 최연태(2012)는 온라인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에서 사회자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민참여로 국한하여 측정하였는데, 신뢰나 호혜적 규범과 관련된 요소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배귀희 외(2006)의 경우도 사회자본을 Burt의 ‘구조적 공백’ 이론을 이용하여 조작화 하였는데, ‘구조적 공백’ 개념 또한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측면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숙중 외(2008)의 경우에는 사회자본의 신뢰 측면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서 신뢰를 세분화하여 사회신뢰(일반신뢰, 구체적 신뢰)와 기관신뢰(민간 기관신뢰, 공공기관 신뢰)로 나누고 있다. 그는 “기존의 포괄적 사회자본 연구에서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발생하는 참여나 네트워크 요소를 분리시켜 보다 사회자본의 개념을 명확하게 살펴 볼 목적”으로 사회자본을 신뢰에 국한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한편, 박종민(2003)을 비롯한 7편의 논문은 사회자본을 협의로 보아 신뢰와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와 규범, 기타 요소를 사회자본으로 측정하였다(박종민, 2003; 임승빈 외, 2005; 박희봉 외, 2005; 곽현근 2007; 허용훈, 2007; 문유석 외, 2008; 유민이 외, 2012). 박종민(2003)은 사회자본을 신뢰와 집단가입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유민이 외(2012)의 경우 신뢰를 기관신뢰와 지역공동체 신뢰로 나누고, 네트워크를 공무원네트워크와 사회활동 네트워크로 나누어 사회자본이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는데, 사회자본의 상호 호혜적 규범의 측면은 찾아볼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다수의 연구들(20편)은 사회자본을 광의로 보아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도수관, 2012; 전기우, 2011; 이곤수 외, 2007; 박희봉 외, 2000 등). 도수관(2012)은 신뢰를 제도신뢰와 일반신뢰로 나누고, 네트워크를 적극적 네트워크와 소극적 네트워크, 규범과 관련해서는 시민의식을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용하였고, 전기우(2011)는 조직 내 사회자본을 측정하기 위해 부서 동료, 상사에 대한 신뢰, 타부서 동료에 대한 신뢰, 회사 내 정책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신뢰 측면으로, 동료와 상사 간 협력, 정보공유 등을 네트워크 측면으로 조직 내 규범과 규칙 확립여부, 책임의식, 묵시적 관행을 규범 측면으로 측정하였다. 이곤수 외(2007)는 신뢰의 경우 대인신뢰, 단체신뢰, 정부신뢰로, 네트워크의 경우 수직적 네트워크, 수평적 네트워크로, 규범의 경우 공동체주의, 사회적 이타심, 관용성, 공정성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박희봉 외(2000)은 신뢰를 정부신뢰와 일반신뢰로, 네트워크를 지역사회 의사소통 채널 존재유무로, 규범을 자발성, 상호존중, 무차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자본 개념을 최광의로 보아 신뢰, 네트워크, 규범의 측면에 참여와 정보공유, 정치 효능감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는 연구들(13편)도 존재했다(한세희 외, 2010; 박영미, 2009; 김태룡, 2006; 서진완 외, 2002; 유재원, 2000). 한세희 외(2010)의 경우 광의의 사회자본 개념에 정치참여와 결사체 참여를 추가로 포함하였고, 박영미(2009)의 경우 참여를, 김태룡(2006)의 경우 투표참여, 유세참여, 후보지지, 문제해결, 자원봉사, 행사참석을, 서진완 외(2002)는 정보공유를, 유재원(2000)은 정치참여와 정치관심, 정치지식, 정치 효능감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차원에 더하여 사회자본의 요소로 사용하였다.

한편, 이인자 외(2012)와 박희봉(2004)은 전통적인 사회자본 측정 방식과

는 달리 독특하게도 가족 사회자본, 학교 사회자본, 지역 사회자본으로 나누고, 각각을 구조와 과정 측면으로 구분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는데, 측정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전통적인 분류에서 네트워크 측면(동아리 가입, 학부모 회의 참석, 종교단체 참여, 사회단체 참여 등)이 강조된 경향이 있었다. 또한 김구(2012)는 구조적 사회자본, 인식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둘째, 사회자본의 측정 수준과 관련하여 개인수준에서 측정하고 있는 연구가 32편(박종민, 2003; 김태룡, 2006 등), 조직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가 7편(전기우 외, 2011; 박영미, 2009 등), 지역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가 13편(박희봉 외, 2000; 최영출 외, 2004 등), 국가단위의 사회자본을 측정하고 있는 연구가 2편(도수관, 2012; 박희봉 외, 2006) 존재했다.

이 중 조직이나 지역단위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 중 개인수준에서 측정한 사회자본을 조직이나 지역으로 환원하여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가 13편이나 존재했다. 다수의 사회자본 연구가 개인의 응답에 의존하고 있지만 개인 수준의 집적(aggregation)을 지역특성으로서 집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Shuller(2000)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분석수준이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나 조직, 국가로 환원하여 사용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언급이나 한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사회자본의 조작화

저널	연구자	차원	사회자본 조작화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기타
정부학 연구	박종민 (2003)	개인	사회신뢰 (특정형, 의리형, 능력형, 일반형)	집단가입 (비가입형, 비공식가입형, 공식가입형, 동시가입형)		
한국 행정 학보	박희봉 외 (2000)	개인 지역	일반신뢰 정부신뢰	지역사회의사소 통채널 존재유무	자발성 상호존중 무차별	
한국 행정 학보	김태룡 (2006)	개인	사회신뢰 제도신뢰	이웃과의 친밀성 지역사회 의사소통 협조성 친교의 다양성 참여도 단체지원정도 구성원의 다양성	외국인, 불우이웃, 혐오시설, 이견,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	투표참여, 유세참여, 정치적 후원, 후보지지 문제해결, 자원봉사, 행사참석, 시설이용
한국 행정 학보	이곤수 외 (2007)	지역	대인신뢰 단체신뢰 정부신뢰	수직적 네트워크 수평적 네트워크	공동체 주의 사회적 이타심 관용성 공정성	
한국 행정 학보	박영미 (2009)	조직	대인신뢰 집단신뢰 정부신뢰	수직적 네트워크 수평적 네트워크	공동체 문제 자발적 행위 관용성	참여
한국 행정 학보	한세희 외 (2010)	개인	일반 신뢰	개인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정치참여 결사체 참여
한국 행정 학보	도수관 (2012)	국가	일반신뢰 제도신뢰	적극적 네트워크 소극적 네트워크	시민의식	
한국 행정 학보	강소량 외 (2012)	개인		가족 관계망 (관계망형태, 상호작용 빈도, 상호작용내용)		

한국 행정 학보	이숙종 외 (2008)	개인	사회신뢰 (일반신뢰, 구체적신뢰) 기관신뢰 (민간기관신뢰 공공기관신뢰)			
행정 논총	윤두섭 외 (2004)	지역	정치적 신뢰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 시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 헌신적 지역사회지도 자에 대한 인지도) 사회적신뢰 (거래관계의 신뢰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 자녀에 대한 신뢰, 부모자녀간 신뢰)	연계망 (지역사회단체 참여, 이웃과의 교류,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줄 이웃, 함께 여행할 친구의 범위)	제도 및 규범 (청소년 비행에 대한 행태,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경험, 법과 질서의 준수정도)	
행정 논총	전기우 외 (2011)	개인 조직	부서 동료신뢰 부서 상사신뢰 타부서 동료신뢰 노력인정 정책, 제도신뢰 투명성	갈등위한 노력 동료, 상사, 직원과 긴밀한 협력 정보공유, 민주성	조직, 부서 내 규범과 규칙 확립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 목시적 관행	
행정 논총	배귀희 외 (2006)	개인		구조적 공백		
행정 논총	한정희 (2009)	개인	신뢰	제휴 및 협약 (공식적 관계, 비공식 관계)	규범	목표공유

한국 정책학 회보	유민이 외 (2012)	개인	기관신뢰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청, 구청, 법원,경찰) 지역공동체 신뢰 (안정성, 소속감, 이웃신뢰, 질서준수)	공무원 네트워크 사회활동 네트워크 (몇명이나 알고 있는가)		
한국 정책학 회보	유재원 (2000)	개인	사회신뢰 정부신뢰		관용성 시민 의무감	정치참여 (통상참여 비통상참여, 투표) 정치관심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한국 정책학 회보	서진완 외 (2002)	개인	신뢰	집단 내 협력	규범	정보공유
한국 정책학 회보	이인자 외 (2011)	개인		가족사회자본 학교사회자본 지역사회자본		
지방 행정 연구	전성훈 (2010)	개인	공적신뢰 사적신뢰	이웃과의 만남 동네문제 해결 참여 동네모임 참여 및 시간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공동체 의식 도움받을 수 있는 여부	
지방 행정 연구	권영숙 외 (2011)	개인	신뢰 (9문항)	네트워크 (13문항)	사회적 규범 (13문항)	
지방 행정 연구	이숙중 외 (2008)	개인	사회신뢰, 대인신뢰 구체적 신뢰, 지역사회신뢰 공공기관신뢰, 민간기관신뢰			
지방 행정 연구	임승빈 외 (2005)	지역		자발적 비영리 주민조직 수		자원봉사자 및 기부금 분석지표 주민참여 분석지표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곽현근 (2003)	지역	이웃에 대한 신뢰	동네조직 참여		비공식적 유대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배병룡 (2005)	조직 개인	신뢰	연계	규범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황영호 외 (2004)	개인 지역	신뢰와 안전 제도단체 신뢰	이웃네트워크 가족과 친구 네트워크	다양성 관용 외국인 허용여부	참여의 적극성 실제참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이창기 외 (2005)	개인 지역	신뢰와 안전 제도단체 신뢰	이웃네트워크 가족과 친구 네트워크	다양성 관용 외국인 허용여부	참여의 적극성 실제참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전기우 외 (2011)	개인	신뢰	네트워크	규범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송건섭 (2009)	개인	대인신뢰 단체신뢰 정부신뢰	수직적 연결망 수평적 연결망	공동체 주의 사회적 이타심 관용성 공정성	
한국 행정 논집	박희봉 외 (2005)	개인	가족신뢰 동료신뢰 이웃신뢰	사적네트워크 지역사회네트워크		사회참여 정치참여
한국 행정 논집	이희창 외 (2005)	지역	이웃신뢰 기초자치단체 신뢰 광역자치단체 신뢰	지역 주체 간 협력여부 의사소통채널 존재여부	정보공유 출신지역 비차별 상호의사존 중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 지역내 구호활동 참여
한국 행정 논집	김태영 (2006)	개인	신뢰	인적교류	규범준수	
한국 행정 논집	김은희 (2011)	조직 개인	신뢰	네트워크	규범 (조직내 규칙준수)	

한국 정책 과학 학회보	이희창 외 (2007)	조직 개인	직장동료신뢰 직장상사신뢰 직장부하직원 신뢰	부서동료와의 협력 상사와의 협력 부하직원과의 협력 타부서원과의 협력	직장내 질서 성차별 배제 상호존중	공식행사 자발적 참여 회의 참여 의견개진 경조사 등 비공식 참여
한국 정책 과학 학회보	박희봉 외 (2005)	개인 지역	대인신뢰 (사적신뢰, 일반신뢰) 기관신뢰 (사회단체 신뢰, 정부신뢰, 언론신뢰, 기업신뢰)			사회단체 참여 (동질적 단체참여, 이질적 단체 참여)
한국 정책 과학 학회보	이희창 외 (2008)	개인				가족관계 직장관계 (동료관계, 상사관계) 사회관계 (단체참여, 정치참여)
한국 정책 과학 학회보	박희봉 외 (2006)	개인				가족관계 직장관계 (동료관계, 상사관계) 사회관계 (단체참여, 정치참여)
한국 정책 과학 학회보	박희봉 외 (2006)	개인 국가	대인신뢰	네트워크 (폐쇄형, 개방형)		참여 (수직적, 수평적)
한국 정책 과학 학회보	전오진 외 (2009)	개인	일반신뢰 (정부, 대인, 제도) 특정신뢰	귀속적 네트워크 비귀속적 네트워크		연구적 태도
한국 지방자 치학 회보	곽현근 (2007)	개인	이웃신뢰 제도신뢰 이웃과의 유대			주민조직참여 지역사회 애착 정치적 효능감

한국 지방자 치학 회보	김명숙 (2004)	개인 지역	사회신뢰	사회연계망	사회규범	
지방 정부 연구	박희봉 (2002)	개인 조직	신뢰	네트워크	규범	
지방 정부 연구	박희봉 (2004)	개인				가정 사회자본 (구조, 과정) 지역사회 사회자본 (구조, 과정) 학교사회 자본 (구조, 과정)
지방 정부 연구	최영출 (2004)	지역	이웃에 대한 신뢰 지방공무원에 대한 신뢰 중앙공무원에 대한 신뢰 NGO에 대한 신뢰 종교기관에 대한 신뢰 무고, 진정, 투고 건수 119 허위신고건수	회비를 내는 봉사단체수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목단체수 이웃의 범위 도움 필요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 가입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기대정도	범죄발생을 주차위반 적발건수 음주단속건 수 지역주민의 일반적 법규준수정 도	집단적 협력 (지역개발 공동모금회 기금모금 수준, 기부금 규모, 적십자 회비 납부실적 현열자수, 시위참여 경험) 사회적 포용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태도, 주변 불우이웃에 대한 태도, 비선호 시설의 인근지역입지 에 대한 태도)
지방 정부 연구	이양수 (2006)	개인	민간제도 공공제도 정치인 사회	1차 집단 (동창회, 향우회, 친목단체)	제도규범 (조세에 순응, 법과 규범준수)	이웃 간 유대 (큰돈을 빌려줌, 낙심하거나

				2차집단 (정당, 주민운동단체, 노조)	정책규범 (정책결정 국민의견 반영, 참여기회 반영)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과 대화, 직장구하는 것을 도와줌)
지방 정부 연구	민기 (2006)	개인	협약신뢰	공적토론, 경조참석 조직참여, 직위역임 자기정보, 주민인지	심적부담 위반인지	
지방 정부 연구	허용훈 (2007)	개인		주민들의 인적네트워크 주민간의 결속력		관할지역의 경제적 수준 지역주민의 문제해결 능력
지방 정부 연구	곽현근 (2007)	개인 지역	지역공동체 의식 (동네 사람들의 신뢰정도)	이웃과의 교류		집합적 효능감 주민조직 참여
지방 정부 연구	문유석 외 (2008)	개인		인적네트워크 정도 결속력		지역주민의 문제해결 능력
지방 정부 연구	권태형 외 (2010)	지역	1인당 금융대출 규모	비영리 민간 단체수 (인구 십만명당)	법규 위반율 (인구 십만명당)	집단협력 (지방선거 투표율) 개방성 (외국인수 비율) 지식기반 환경 (독서율)
지방 정부 연구	김형빈 외 (2010)	개인		사회적 연결망 (지인들의 직업적 범주, 조언 받은 경험과 대상)		

지방 정부 연구	진관훈 (2012)	개인	가족, 친척에 대한 신뢰 이웃친구에 대한 신뢰 공공기관 신뢰 사회기관신뢰 금융기관 기업 신뢰 사회복지시설 신뢰	정보공유정도 기관간 협력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사회단체 가입정도	법과 질서 준수, 지역내 갈등 해결, 청렴정도, 법규준수 여부	사회구조 (차별에 대한 인식, 소득불균형에 대한 인식,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 보유 여부, 지역사회문제 에 대한 자발적 의견제시 여부, 정치활동참여 정도)
지방 정부 연구	이희태 (2012)	지역	정부기관 신뢰도 청렴지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수 도움 요청 주체 중 친인척, 이웃 비율	준법수준 (범죄발생 건수, 지방세 징수율, 불법 주정차 단속율)	참여 (환경보전실 천운동, 에너지 절약 실천, 자원봉사 등록율 및 참여율, 투표율)
지방 정부 연구	최연태 (2012)	개인				온라인 시민참여 온라인 정치참여 오프라인 정치참여
한국 행정 연구	박희봉 외 (2003)	개인 조직	조직 내 신뢰 (동료, 상사, 이웃 등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타인과의 협력)	규범 (규칙준수, 질서확립, 시민의식 등)	
한국 행정 연구	박희봉 외 (2008)	개인				성장기 (부모생존, 부모관계, 부모지위) 현재 (가족신뢰, 자녀교육, 가족행사참여 , 가족관계)

한국 행정 연구	김구 (2012)	개인 조직				구조적 사회자본 인식적 사회자본 관계적 사회자본
----------------	--------------	----------	--	--	--	---

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한국행정학계의 사회자본 측정방식에서도 볼 수 있듯, ‘사회자본’은 개념적으로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측정에서도 학자마다 다양한 측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용어이다. 사회자본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추출해 내면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로 그 구성요소를 좁힐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뢰

사회자본 논의에서 말하는 신뢰는 선행을 베풀면 즉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기적 기대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Putnam(1993)에 의하면 신뢰는 도덕적 자원(moral resources)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 할수록 그 공급이 많아지고 사용되지 않으면 고갈된다.

사회자본 논의에서 신뢰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된다. 신뢰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크게 대인신뢰와 기관신뢰로 나눌 수 있고, 대인신뢰는 다시 특정인에 대한 신뢰인 특정신뢰와 일반신뢰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사회자본 연구들을 보면 신뢰를 대인신뢰에 한정하는 경우(박종민 외, 2003; 박희봉, 2006; 한세희, 2010; 박통희, 2010)가 있는 반면, 정부신뢰 등 기관신뢰까지 포섭하는 경우(김태룡, 2006; 박희봉, 2005; 이숙중, 2008)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자본을 측정할 때 신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할 것인가? 생각건대, 측정 수준에 따라 달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할 경우 개인과 개인 간의 네트워크로부터 생기는 신뢰를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신뢰를 제외한 대인신뢰만을 측정해야

하는 반면, 지역 내지 국가 단위로 사회자본을 측정할 경우 개인의 신뢰를 집단의 신뢰로 환원해야 하므로 그 집단이 정부 등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 지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연구이므로 신뢰를 대인신뢰로 단순화 하여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개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의 측면이 크다. 즉, 연결망을 통해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그 핵심이다. 제도 신뢰의 경우, 전체사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가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사회자본을 측정할 경우 기관 내지 제도 신뢰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포함시킨다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사람들, 대상, 사건 등으로 규정되는 것들의 연결된 관계”를 말한다(Knoke and Kuklinski, 1982; 서진완 외, 2003).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호작용의 유형”이다(박종민 외, 2006). 퍼트남(1993)에 의하면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수록 규범과 신뢰의 수준이 높아진다. 네트워크는 수직적인 것(vertical)과 수평적인 것(horizontal)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직적인 것은 동등하지 않은 행위자를 위계질서와 종속의 비대칭적 관계로 연결시키고, 수평적인 것은 동등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행위자들을 결집시킨다(Putnam, 1993).

또한 위에서 자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연계형 네트워크와 결속형 네트워크로도 나눌 수 있다. Putnam(2000)에 의하면, 결속형 네트워

크는 본질적으로 배타적, 폐쇄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말하는 반면 연계형 네트워크는 개방적이고 외부지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 호혜적 규범

호혜적 규범은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공유된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의미한다(서진완 외, 2003).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상호 호혜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퍼트남(1993)에 의하면, 호혜성은 균형화 된 것(balanced)과 포괄적인 것(generalized)으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는 같은 가치의 것을 동시에 교환하는 것, 예를 들면, 명절에 선물을 교환하는 것 등을 뜻하고, 후자의 것은 당장은 받지 못할 지라도 내가 오늘 베푼 혜택을 언젠가는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말한다.

규범의 내용도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면, 사회적 규범과 제도적·법적 규범으로 구분하는 연구(배유일, 2004)가 있는 반면 두 규범을 구분하지 않는 연구(이곤수 외, 2007)가 있다. 미시적인 차원에서 실제 측정 지표들을 살펴보면, 공동체주의와 관용성을 규범으로 측정한 연구(이곤수 외, 2007; 박영미 외, 2009; 전성훈 외, 2010), 외국인에 대한 허용여부를 포함한 연구(황영호 외, 2004; 이창기 외, 2005), 법과 질서에 대한 준수, 조세에 대한 순응, 공정성 등 법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범의 측정지표로 사용한 연구(이양수, 2006) 등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생각건대, 상호 호혜적 규범은 네트워크나 신뢰로부터 생기는 결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사회의 속성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④ 참여와 결사체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과 더불어 참여와 결사체도 사회자본의 구성 요소로 자주 거론된다(유재원, 2000; 김태룡, 2006; 박영미, 2009; 한세희, 2010). 하지만 박통희(2010)의 지적처럼 “네트워크와 참여, 결사체는 개념적으로 중첩되며, 이 중에서 사회적 관계에 배태된 현상으로서 상호작용의 구조화를 가장 잘 표상할 수 있는 용어는 네트워크”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참여와 결사체를 네트워크로 범주화하여 논의하도록 하겠다.

라. 사회자본 구성개념 간 관계

그렇다면 사회자본의 개념인 신뢰,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상호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박통희(2010)은 사회자본의 개념적 모호성과 관련하여 “네트워크와 규범을 특성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대인 신뢰와 대등한 사회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한다. 따라서 사회자본 개념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박통희(2010)에 따르면 대인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네트워크와 규범만 사회자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소위 ‘연줄’이 사회자본인가 하는 논쟁을 생각할 때 규범과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인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사회자본을 신뢰에 한정하고 신뢰와 네트워크, 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본 이숙종 외(2008)에 의하면 주민참여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정도가 더할수록 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와 참여를 신뢰의 원인변수로 보고 있다.

유재원(2000)은 “사회 네트워크가 신뢰와 호혜주의와 같은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규범을 생성시키고 이러한 규범들이 사회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즉, 네트워크를 신뢰와 호혜적 규범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수로 보고 있다.

한편 Whiteley(1999)는 자발적 결사체가 신뢰와 호혜적 규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호혜적 규범이 자발적 결사체 형성과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신뢰 없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마. 본 연구의 측정방식

Putnam의 측정방식이 가진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결사체 가입 및 참여는 측정의 간접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는 유용한 방식이다(Petrusevich, 2002).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고(이현우, 2009 ; 이정규, 2003 ; Stone, 2001), 본 연구가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 복지패널 설문이 가진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퍼트남의 사회자본 측정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사회자본을 광의로 보고 연계형(bridging)네트워크는 비슷한 취미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 시민단체 혹은 직업과 연관 없는 모임, 자선단체나 문화예술 단체의 참여로, 결속형(bonding) 네트워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참여로 조작화 하기로 한다. 또한 신뢰는 대인신뢰에 한정하고, 상호 호혜적 규범은 공정성과 관련한 설문을 사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3. 심리자본

그동안의 조직과 관련된 연구들은 구성원들이 가진 부정적 행동 또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부정적 결과를 없애는 것이 조직성과의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Luthans 외, 2009). 전통적인 조직연구의 대안으로 긍정조직행태(positive organization behavior)연구가 등장하였는데, 긍정조직행태 연구의 핵심 개념이 바로 심리자본이다. 긍정조직행태 연구는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적 측면을 주목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동섭 외, 2010). 다시 말해, ‘조직구성원들의 긍정적 행태에 대한 적극적 관리와 개발을 통해 행태를 개선하고 탁월한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김동철 외, 2012)’이 긍정조직행태연구의 지향점인 것이다.

심리자본 연구의 시초는 Seligman(2002)의 저서 Authentic Happiness에서 시작된다. 이 책에서 Seligman은 ‘심리자본이 존재하는지’, ‘만약 있다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발전시켜 Luthans 외(2004)는 심리자본을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과 구분하면서 경제자본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What you have)에 관한 것이라면 인적자본은 무엇을 아는지(What you know), 사회자본은 누구를 아는지(Who you know), 심리자본은 본인이 누구인지(Who you are)로 표현했다.

이러한 심리자본은 크게 네 가지 하위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tajkovic, 2003; Luthans 외, 2004; Luthans & Avolio, 2007).

첫째, 자신감(confidence)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하는 데 필요한 동기부여, 인지적 자원과 행동과정 등을 동원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이다(Luthans & Avolio, 2007; Stajkovic 외 1998; 유현숙, 2006). 자신감이 클수록 조직몰입, 이직의도 및 조직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tajkovic 외 1998). 자신감은 노력하기 이전 단계에서 중요하다.

둘째, 희망(Hope)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목표를 직접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목표 달성 경로에 근거한 긍정적인 동기부여 상태'로 정의 될 수 있다(Snyder, 2002). 희망이 다른 긍정적 행동들과 유사한 특성이 있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개념적 구별이 가능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Luthans 외, 2004). 희망은 현재가 아닌 미래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희망은 학업이나 운동적인 성취, 건강 등과 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Snyder, 2002), 직무성과와 직무태도(Luthans, 2007), 조직 유효성(Adams 외, 2002)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복원력(Resilience)은 '역경, 불확실성, 갈등, 실패 같은 상황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 역량' 이다(Luthans, 2002; 김동철 외 2012). 복원력은 심리자본의 다른 개념들에 비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러나 고난으로 부터의 복원(bounce back)은 혼돈의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Luthans 외, 2004) Fraser(1999)는 복원력을 고난이나 어려움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부정적인 정신적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넷째, 낙관주의란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달성과 같은 긍정적인 사건들을 내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포괄적인 것으로 귀인(attribution)하는 것'을 말한다(Peterson 외, 2002; Luthans 외 2007). 낙관주의는 개인성과, 직무만족, 행복, 경력개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Higgins 외 2010). 낙관주의는

학습되거나 발전될 수 있는 요소이다(Carver 외, 2002)

Luthans 외(2004)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심리자본과 타 개념의 비교

	경제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	심리자본
지향점	What you have	What you know	Who you know	Who you are
핵심요소	재정, 자금 눈에 보이는 자산	경험, 교육 기술, 지식, 아이디어	관계 네트워크 동료 및 친구	자신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자본 관련 선행연구 경향

사회 자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사회 자본의 개념 및 측정에 관한 연구, ②사회 자본과 관련한 사례연구, ③사회 자본을 독립변수로 이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경험적 연구, ④사회자본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자본 개념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먼저 김상준(2004)는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 사회자본의 이론적 성격에 대해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퍼트남의 사회 자본은 부르디외와 콜만의 사회자본 개념에 빌려온 것인데, 이 두 사람의 사회자본 개념은 ‘자기 이해(self-interest) 단일 동기’라는 이론적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콜만과 부르디외가 말한 신뢰나 규범은 결국 자기이해라는 동기로 귀착되기 때문에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a fallacy of begging the question)을 범하고 있고, 이를 이어 받은 퍼트남의 사회자본도 개념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궁근(2007)은 사회자본 형성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가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미시적 연구와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연구로 구분된다고 지적하면서 개인에 대한 연구결과를 거시적 맥락의 관점에서 추론할 때 환원주의적 오류(reductionism)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영출(2004)은 지역의 사회자본측정 지표를 설정하고 설정지표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 사회자본의 여러

구성차원 중 신뢰 부문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박희봉(2002)은 사회자본 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에 대해 분석했고, 오수길(2004)은 사회자본과 정부, 거버넌스 개념간의 연계에 대한 시론적 연구했으며, 안성호 외(2002)는 동네 수준의 사회자본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했다.

둘째, 사회자본과 관련된 사례분석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배응환(2002)은 태안 해안관광도로, 안면도 골프장, 경인 우회도로 건설, 둔철 골프장의 4개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고, 박규동 외(2012)는 청도군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선거의 표 매매와 관련하여 청도의 선거 부패가 높은 수준의 결속형 사회자본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송경재(2008)은 ‘화도사랑’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e-사회자본’ 형성이 가능함을 분석했으며, 강용배(2003)은 충북옥천신문, 대전 중앙시장 생산골목 번영회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정체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셋째, 사회자본을 독립변수로 한 경험적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회자본을 원인 변수로 두고, 이러한 사회자본이 다양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한 것들이다.

종속변수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먼저 개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연구로 사회자본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강소랑 외, 2012), 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세희 외, 2010)가 있었다.

또한 조직이나 정부 내지 도시의 성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윤두섭 외, 2004; 임승빈 외,

2005), 복지전담인력의 사회자본, 지적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기우 외, 2011), 시민참여를 매개로 사회자본이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본 연구(유민이 외, 2012),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자본이 복지전담인력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전기우 외, 2011), 사회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권태형 외, 2010)가 있다.

한편, 사회자본이 정치적 요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로는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숙중 외, 2008; 이현우, 2002; 박희봉 외, 2005; 곽현근, 2007; 이양수 2006)가 있었고, 사회자본이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송건섭, 2009),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김명숙, 2004), 민주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종민, 2003),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현우 외, 2009)가 있었다.

그 밖에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희봉, 2004; 이인자 외, 2011), 사회자본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희봉 외, 2006), 부패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오진 외, 2009) 등이 있다.

넷째, 사회자본을 종속변수로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우선, 참여적 특성들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한 연구들로 결사체 활동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유재원, 2000; 박희봉, 2002), 자원봉사 활동의 특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권영숙 외, 2011)가 있다.

또한 인터넷과 관련한 연구들이 여럿 보였는데, 인터넷 활동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서진완 외, 2002), 인터넷 가상공동체가 사회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김태영, 2006), 마이크로 블로그의 정치적 이용이 사회자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최연태, 2012)가 그것들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사회자본 연구 경향

연구자	방법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내용
오수길 외 (2004)	시론적 연구			-사회자본과 정부, 거버넌스의 연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이창기 (2004)	시론적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협력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박희봉 외 (2001)	지표개발			-지역사회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김승현 (2006)	지표개발			-사회자본 구성요소 간 상관관계 분석
최영출 (2004)	지표개발 AHP 기법			-지역사회자본 측정지표 설정
안성호 외 (2002)	개념적 연구			-동네 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허철행 외 (2007)	개념적 연구			-한국 사회자본의 한계와 전망
김시윤 (2008)	개념적 연구			-사회자본의 신뢰변수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측정 상의 문제점
소진광 (2004)	탐색적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연계화 방안
남궁근 (2007)	메타분석			-사회자본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박희봉 (2002)	메타분석			-사회자본 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배웅환 (2002)	사례 분석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와 사회자본, 지역정책에 대한 사례연구 -태안해안관광도로 사례, 안면도 골프장 사례, 경인 우회도로 건설사례, 둔철 골프장 사례
강용배 (2003)	사례 분석	지역정체성	사회 자본	-지역사회정체성과 사회자본과의 관계 -충북옥천신문, 대전 중앙시장 생산골목변영회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박규동 외 (2012)	사례 분석			-지방선거의 표 매매와 관련하여 사회자본 측면에서 사례연구
임경수	사례 분석			-새마을 운동을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함
송경재 (2006)	사례 분석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별 변화에 따른 사회자본과 시민참여 분석 -대구, 광주, 대전
송경재	사례 분석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 자본	-사례분석으로 <화도사랑>이라는 커뮤니티 분석
기영화 (2013)	근거 이론			-지방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 탐색 -17개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사업 담당자 심층면접
박종민 (2003)	교차분석	사회자본	민주 시민성	-집단가입, 사회신뢰와 민주시민성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
박희봉 외 (2000)	회귀분석	사회자본	지역 사회 거버 넌스	-지역의 사회자본이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근수 외 (2007)	회귀분석	사회자본	지방 정부 시민 접촉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 수평적네트워크, 공동체주의, 이타심, 관용성이 시민접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한세희 외 (2010)	회귀분석	사회자본	주관적 안녕감	-사회자본이 주관적 안녕감(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수관 (2012)	회귀분석	사회자본	창의적 기업가 정신	-사회자본이 창의적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젠더, 교육수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른 집단구분
강소량 외 (2012)	구조 방정식	사회자본	중고령자 삶의 질	-사회자본이 중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숙종 외 (2008)	회귀분석	사회자본	거버 넌스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두섭 외 (2004)	회귀분석	사회자본	지방 정부 외부 역량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사례
전기우 외 (2011)	구조 방정식	사회자본	직무 성과	-복지전담인력의 사회자본, 지적자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배귀희 외 (2006)	구조 방정식	사회자본	조직 몰입	-사회자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유민이 외 (2012)	구조 방정식	사회자본	정부 성과 인식	-사회자본이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참여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이인자 외 (2011)	회귀분석	사회자본	교육 성과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의 매개효과
전성훈 (2010)	회귀분석	사회자본	고객 만족도	-사회자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은평구 15개 자치회관
임승빈 외 (2005)	교차분석	사회자본	지방 정부 역량	-지방정부 역량과 사회자본간 관계 분석
전기우 외 (2011)	구조 방정식	사회자본	직무 성과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자본이 복지전담인력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
송건섭 (2009)	구조 방정식	사회참여 사회자본	시민 접촉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이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
박희봉 외 (2005)	회귀분석	사회자본 경제사회 요인	삶의 만족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개인의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희창 외 (2005)	회귀분석	사회자본	대응성 지역 발전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대응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은희 (2011)	구조 방정식	사회자본	직무 만족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자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일몰입의 매개효과 중심
이희창 외 (2007)	회귀분석	인적자원 관리 사회자본	지방 정부 조직 성과	-인적자원관리와 사회자본이 지방정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희봉 외 (2005)	회귀분석	사회자본	정치 참여	-한중일 3국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희창 외 (2008)	회귀분석	사회자본	집단 가치	-한일 양국의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순응주의, 개방주의, 성취주의, 보편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희봉 외 (2006)	회귀분석	사회자본	양성 평등	-사회자본 형성과정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희봉 외 (2006)	회귀분석	사회자본	국가 경쟁력	-사회자본이 한중일 국가경쟁력 인식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오진 외 (2009)	회귀분석	사회자본	부패 용인도	-사회자본이 부패 용인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곽현근 (2007)	회귀분석	사회자본	투표 참여	-개인수준의 사회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명숙 (2004)	분산분석	사회자본	정부 신뢰 효능감 협조	-사회자본과 정부신뢰, 정치적 효능감, 정부에 대한 협조 관계
박희봉 (2004)	회귀분석	사회자본	교육 성과	-사회자본이 교육성가에 미치는 영향
이양수 (2006)	회귀분석	사회자본	정치 참여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기 (2006)	회귀분석	사회자본	협약 이행	-사회자본이 제주도 감귤 생산자간 협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감귤유통명령제 협약이행 정도
허용훈 (2007)	회귀분석	사회자본	경찰 활동 성과	-사회자본이 지역경찰활동 성과(지역경찰에 대한 만족도, 체감치안정도)에 미치는 영향
문유석 외 (2008)	회귀분석	사회자본	적극적 경찰 활동	-사회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불심검문 강화, 순찰활동의 적극성, 강력범죄 치중정도, 거동수상자 검문강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태형 외 (2010)	회귀분석	사회자본	도시 경쟁력	-사회자본이 도시경쟁력(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숙중 외 (2008)	회귀분석	사회자본	정치 참여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김구 (2012)	구조 방정식	사회자본 지식관리 활동	조직 성과	-사회자본과 지식관리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방공무원 대상 설문
이현우 외 (2009)	회귀분석	사회자본	지역 주의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희봉 외 (2008)	회귀분석	가족 사회자본	사회 참여	-가족 사회자본이 사회참여(단체참여,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일 양국 간 비교
박희봉 외 (2003)	회귀분석	사회자본 지적자본	조직 성과 관리	-사회자본과 지적자본이 조직성과관리(조직관리, 성과지향성,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연태 (2012)	회귀분석	마이크로 블로그의 정치적 이용	사회 자본	-마이크로 블로그(트위커, 미투데이 등)의 정치적 이용이 참여적 사회자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김태룡 (2006)	회귀분석	시민단체	사회 자본	-시민단체의 요인들이 사회자본 형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단체 요인을 개인적요인, 조직적 요인, 전략적 요인(내부/외부)로 나눔
박영미 (2009)	회귀분석	조직성격 유형	사회 자본	-조직 성격의 유형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직성격을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으로 나눔
한정희 (2009)	회귀분석	기업특성	사회 자본	-기업의 특성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유재원 (2000)	회귀분석	결사체 활동	사회 자본	-결사체 활동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진완 외 (2002)	회귀분석	인터넷 활동	사회 자본	-인터넷 활동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권영숙 외 (2011)	회귀분석	자원봉사활동 동특성	사회 자본	-자원봉사활동 특성유형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이숙중 외 (2008)	교차분석	사회적 특성, 행위	사회 자본	-사회적 특성과 행위변수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을 신뢰에 국한하고 네트워크와 참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성별, 연령, 학력 등은 사회자본(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주민참여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정도가 더할수록 사회자본(신뢰)이 증가하는 경향
곽현근 (2003)	위계적 선형모형	동네 무질서	사회 자본	-동네 사회자본 영향요인으로 동네무질서와 빈곤동네 제시
배병룡 (2005)	회귀분석	갈등경험 경쟁 인사공정성	사회 자본	-공공조직 내의 사회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황영호 외 (2004)	회귀분석	지역요인 사회적배경	사회 자본	-충청과 호남지역의 사회자본의 실태와 형성전략에 대해 연구
이창기 외 (2005)	회귀분석	지역요인 사회적배경	사회 자본	-대전천안지역 사회자본 실태와 증진방안

김태영 (2006)	회귀분석	인터넷 특성	사회 자본	-인터넷의 구조적 특징(개설방식, 공동체기반, 공동체 유형, 공동체 유사성), 운영방식(설명제, 운영규칙, 제재유무, 타 공동체와의 교류, 오프라인 모임)이 사회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이 인터넷의 구조적 특징 및 운영방식과 사회자본 사이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힘
곽현근 (2007)	회귀분석	동네효과	사회 자본	-동네효과(주거관련요인, 동네관련 변수)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박희봉 (2002)	회귀분석	사회적배경 단체참여 업무환경	사회 자본	-조직구성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단체 참여 및 활동, 조직업무환경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형빈 외 (2010)	교차분석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진관훈 (2012)	ANOVA			-지방정부 사회적 자본 증대 방안 -제주지역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함
이희태 (2012)	기술통계			-해운대구의 사회자본 현황과 확충전략

2. 심리자본 관련 선행연구 경향

심리자본과 관련된 국내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주체와 관련하여 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계와 경영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간헐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것이 2010년 이후, 심리학 관련 학술지인 한국심리학회지와 경영학 관련 학술지인 인적자원관리연구, 경영학연구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위의 3개 학회지에 실린 심리자본 관련 연구만 10편에 이른다. 한편, 행정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김동철 외(2012)와 이병철 외(2009)를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심리자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이나(김형주 외, 2013; 김동건 외, 2012; 양필석 외, 2012; 이철희 외, 2012; 양필석 외, 2011; 이병철 외, 2009) 회귀분석을 사용한(장지선 외, 2013; 이혜림 외, 2013; 김해룡 외, 2013; 오은혜 외, 2012; 최용득 외, 2012) 경험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내용적으로 보면 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두고,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장지선 외, 2013, 이혜림 외, 2013 등), 심리자본을 종속변수로 두고, 다른 변수들이 심리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본 연구(김주섭 외, 2013; 양필석 외, 2012 등),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본 연구(김형주 외, 2013; 김해룡 외, 2013 등)이 있다. 심리자본을 독립변수로 본 연구들은 심리자본이 정서적 조직몰입, 개인의 창의성, 심리적 주인 의식,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하고 있다. 심리자본을 종속변수로 본 연구들은 조직문화, 리더십 등이 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주목한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직무과부하와 직무탈진, 감성리더십과 변화몰입, 경력계획과 주관적 경력성공, 리더의 유

머사용과 조직성과, 리더십과 직무열의 사이에서 심리자본이 가지는 매개 효과를 보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심리자본 연구경향

연구자	방법	독립 변수	종속 변수	내용
장지선 외 (2013)	회귀 분석	심리자본 학습목표지향성 리더의 비전제시	정서적 조직몰입	-긍정심리자본, 학습목표지향성, 리더의 비 전제시가 정서적 조직몰입에 미치는 과정 에 대한 연구 -변화이점, 조직냉소주의의 조절효과를 살 펴봄 -긍정심리자본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 이때 변화이점, 조직냉소주의가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김형주 외 (2013)	구조 방정식	직무과부하 심리자본(매개)	직무탈진	-직무과부하가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직무과부하는 심리자본에 부(-)적 영향을 미침 -심리자본은 직무과부하와 직무탈진 사이의 매개효과를 가짐
이혜림 외 (2013)	회귀 분석	심리자본 정서, 인지(매개)	개인의 창의성	-심리자본이 개인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와 인지의 매개효과를 봄 -긍정심리자본은 개인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김해룡 외 (2013)	회귀 분석	감성리더십 심리자본(매개)	변화몰입	-감성리더십이 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감성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의 구성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에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탄력성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음 -감성리더십이 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주의의 매개효과가 존재함
김주섭 외 (2013)	위계 선형 모형	조직문화	심리자본 조직몰입	-조직문화, 심리자본, 조직몰입과의 관계 -조직문화 유형중 관계문화와 합리문화가 심리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심리자본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오은혜 외 (2012)	회귀 분석	경력계획 심리자본(매개)	주관적 경력성공	-경력계획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연구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긍정심리자본은 경력계획과 주관적 경력성 공 간의 긍정적 영향을 정적으로 매개함

김동건 외 (2012)	구조 방정식	진성리더십 심리자본	심리적 주인의식	-진성리더십, 심리자본, 심리적 주인의식 상호간 관계에 관한연구 -진성리더십은 심리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심리자본은 진성리더십에 정(+)의 영향을 미침
양필석 외 (2012)	구조 방정식	임파워링 리더십	심리자본 조직변화몰입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자본과 조직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파워링 리더십은 심리자본과 조직변화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 -심리자본은 조직변화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침
최용득 외 (2012)	회귀 분석	리더의 유머사용 심리자본(매개)	성과 행복	-리더의 유머사용이 구성원의 성과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함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살펴봄 -긍정심리자본은 구성원의 성과와 행복에 대한 리더의 유머사용과 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철희 외 (2012)	구조 방정식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심리자본(매개)	직무열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확인함 -심리자본은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열의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매개효과를 보여줌
양필석 외 (2011)	구조 방정식	심리자본 내재적 직무동기(매개)	직무만족 조직몰입	-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심리자본은 내재적 직무동기에 정(+)의 영향을 미침 -심리자본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재적 직무동기를 매개로 영향을 미침
이병철 외 (2009)	구조 방정식	심리자본	직무만족 조직시민행동	-지방공무원의 심리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심리자본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침

3. 정부신뢰 관련 선행연구

국내 문헌들을 중심으로 정부신뢰와 관련된 최근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접근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배정현, 2013; 박희봉 외, 2013; 이수인, 2013; 정광호, 2011; 금현섭 외, 2011; 이승중; 2008 등)와 구조방정식(김관보 외, 2012; 양건모 외, 2007; 박순애, 2006 등)을 이용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정부신뢰와 같이 추상적 개념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 행정학계가 너무 양적연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둘째, 정부신뢰 측정과 관련하여 일부 연구들은 단일차원에서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사용하였고(배정현, 2013; 박희봉 외, 2013; 이수인, 2013; 이승중, 2008 등), 일부연구들은 다차원적으로 정부성과를 비롯한 다양한 양상을 측정하는 설문을 이용하였다(서인석 외, 2013; 김관보 외, 2012; 박순애, 2006; 손호중 외 2005 등).

한편, 내용적으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소수의 연구가 정부신뢰를 독립변수로 놓고 이에 영향을 받는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이나 국회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전대성 외, 2013; 정광호 외, 2011; 배귀희 외, 2009). 전대성 외(2013)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오히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는 정책선호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할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배귀희 외(2009)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정부신뢰의 원인과 관련된 Miller(1974)와 Citrin(1974)의 논쟁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정부성과보다 정부신뢰에 더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한 Citrin의 논의가 한국에서는 좀 더 적실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정광호 외(2011)의 연구도 지방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직부패(서인석 외, 2013), 정부의 대응성 및 투명성(Kim Soonhee 외, 2012), 공정성(박종민 외, 2011; 손호중 외, 2005), 지방정부의 청렴성(정광호 외, 2011), 도덕성(박순애, 2006)과 같은 윤리적 요소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인석 외(2013)는 거래비용관점에서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사전적 감시비용(제도적 설계)이 클수록 공직부패가 적어지고, 공직부패가 적을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박종민 외(2011)도 정책대우의 상대적 공정성과 정책과정의 절차적 공정성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혀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신뢰의 형성에 있어 정부의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이 보다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음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했다. 한편, 박순애(2006)에 의하면, 정부능력보다 정부의 도덕성이 정부신뢰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결정 및 집행이 시민들의 정부신뢰를 높이는 전제조건임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부의 성과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인 2013; 박희봉 외, 2013; 박종민 외, 2011; 손호중 외, 2005). 국가경제만족도, 가계경제만족도와 같은 경제적 성과에서부터,

정치만족도와 같은 정치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수인(2013)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성과와 관련된 변수들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남녀 성별차이에 주목했는데, 정치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부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와 같은 효과에서 성별의 차이가 존재함을 밝혀냈다.

넷째, 개인의 인식과 관련된 변수들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시민의 가치관(배정현, 2013), 이념(박희봉 외, 2013; 박종민 외, 2011; 박순애, 2006), 자기 표현 가치나 정치적 효능감(Kim Soonhee 외, 2010; 배귀희, 2009), 종교(이승중, 2008)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승중(2008)에 의하면 종교가입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종교참여는 부정적 영향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해 연구자는 정부신뢰 연구에 있어 종교변수에 대한 본격적 고려가 있어야 함을 실천적 함의로 제시했다.

다섯째, 시민참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XiaoHu Wang 외, 2008; 양건모 외, 2007), 정부신뢰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배귀희 외, 2009)으로 나타났다. 양건모·박통희(2007)는 2005년 전국 의사와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의사, 약사들의 정책과정 참여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정부주도의 참여와 비정부주도의 참여가 의사와 약사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것을 밝혀냈다. 한편, 배귀희 외(2009)에 의하면 정부신뢰는 투표와 같은 공식적 시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여섯째, 정부신뢰는 정부지출의 선호도(금현섭 외, 2010)나 정책순응(김관보 외, 2012)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보(2012)에 의하면, 지방정부 신뢰는 정책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정부신뢰 연구경향

연구자	방법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정부신뢰 측정	내용
서인석 외 (2013)	구조 방정식	공직 부패	정부 신뢰	다차원 (정책신뢰, 기관신뢰)	-거래비용관점에서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 의 관계를 살펴봄 -사후적 감시비용(시민참여)가 클수록 정 부를 신뢰함 -공직부패 정도가 클수록 정부를 불신 -사전적 정보비용(제도설계)가 클수록 공 직부패가 적어짐
배정현 (2013)	위계 선형 모형	시민의 가치관	정부 신뢰	단일차원	-시민의 가치관(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평등주의, 주관적 안녕)이 정부신뢰에 미 치는 영향을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함 -전통주의, 후기물질주의, 주관적 안녕감이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박희봉 외 (2013)	회귀 분석	정책 정치적 태도	정부 신뢰	단일차원	-정부정책과 정치적 태도가 정부신뢰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성과만족, 정치참여 중 투표참여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정부정책 중 선택적 복지는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개인의 다양한 가치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수인 (2013)	회귀 분석	경제적 성과, 정치적 성과	정부 신뢰	단일차원	-경제적 성과(국가경제만족도, 미래국가경 제, 가계경제만족도, 미래 가계경제, 회고 적 가계경제)와 정치적 성과(정치만족도, 향후 정치전망, 공공기관의 인권보장 노 력, 사회권, 정치적 자유권)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남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봄 -정치적 성과가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큼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정부신뢰에 대해 갖는 효과에서 성별의 차이 존재
전대성 외 (2013)	회귀 분석 (2단계 최소화 자승법)	대통령 신뢰, 정부 정책 평가	정부 신뢰	단일차원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의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정부신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Kim S.외 (2012)	구조 방정식	참여 만족도, 대응성, 투명성	정부 신뢰	단일차원	-E-participation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함 -참여의 만족도와 정부 대응성은 참여자의 향상도와 정책과정의 영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들은 정부 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부 투명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함
김관보 외 (2012)	구조 방정식	정부 신뢰	정책순응	다차원 (피해감수, 리더십, 종합신뢰)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과의 관계 -지방정부 신뢰는 정책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정광호 외 (2011)	회귀 분석	성과, 시민 활동, 정부와 연관성 등	지방 정부 신뢰	단일차원	-지방정부신뢰 요인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신뢰는 다른 국가기관 신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지방정부 청렴성, 유능함에 대한 인식이 지방정부신뢰와 유의미한 연관성 -정책이해도가 높을수록 정부 신뢰
박종민 외 (2011)	회귀 분석	경제 상황, 정책 수혜, 공정성, 정치 이념	정부 신뢰	다차원 (전통적 정부신뢰, 정부제도 신뢰)	-정부신뢰의 원인에 대한 연구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정책수혜의 상대적 수준과 정치이념은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Kim S. (2010)	회귀 분석	정부 성과, 부패, 만족, 자기 표현 가치	정부 신뢰	단일차원	-한국과 일본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두 국가 모두 경제에 대한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 부패, 공공서비스의 질이 정부신뢰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 -시민들의 만족, 자기표현 가치도 양 국가의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금현섭 외 (2010)	회귀 분석	이념 비용, 정부 신뢰	지출선호	단일차원	-정치적 이념과 정부신뢰, 정책지지의 관계를 살펴봄. -정부신뢰와 정치이념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통해 정부지출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한계효과크기를 살펴봄

이승중 (2008)	회귀 분석	종교	정부 신뢰	단일차원	-종교의 정부신뢰에 대한 영향 -종교가입을 긍정적인 영향, 종교참여는 부정적인 영향, 종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Wang 외 (2007)	회귀 분석	시민 참여	정부 신뢰	단일차원	-시민참여를 통해 정부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는 경우 정부신뢰함 -시민참여가 정부의 윤리적 측면을 강화했 을 때 정부신뢰가 커짐
배귀희 외 (2009)	회귀 분석	정부 신뢰	공식적 시민참여	단일차원	-정부신뢰, 정치 효능감, 정치적 인지도, 자발적 결사체 활동 등이 공식적 시민참 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신뢰가 투표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침
배귀희 외 (2009)	회귀 분석	정책 선택, 대통령	정부 신뢰	단일차원	-정책선택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 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 -정책선택보다는 현직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할수록 정부 신뢰
양건모 외 (2007)	구조 방정식	정책 참여	정부 신뢰	다차원	-의사, 약사의 정책과정 참여가 보건복지 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 구 -비정부주도에 의한 참여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매우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와 약사(+사)사이의 결과도 상반되게 나타남 -정부 주도에 의한 참여는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의사, 약사 모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
박순애 (2006)	구조 방정식	지식 수준, 이념	정부 신뢰	다차원 (정부능력 에 대한 신뢰, 기관신뢰)	-대학생들의 지식수준과 이념적 성향이 정 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여당지지자가 야당지지자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고 정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남 -지식은 부패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행정 부신뢰에 영향을 미침
손호중 외 (2005)	구조 방정식	정부 능력, 공정성, 참여, PR	정부 신뢰	다차원 (피해감수 의지, 믿음, 정책순응)	-부안군 원전 수거물 처리장 입지 사례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참여, 정부PR, 공정서는 정부신뢰에 직접 영향 -투명성, 정부능력은 직접효과는 없고, 타 변수를 매개로 효과를 미침

4.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과 정부신뢰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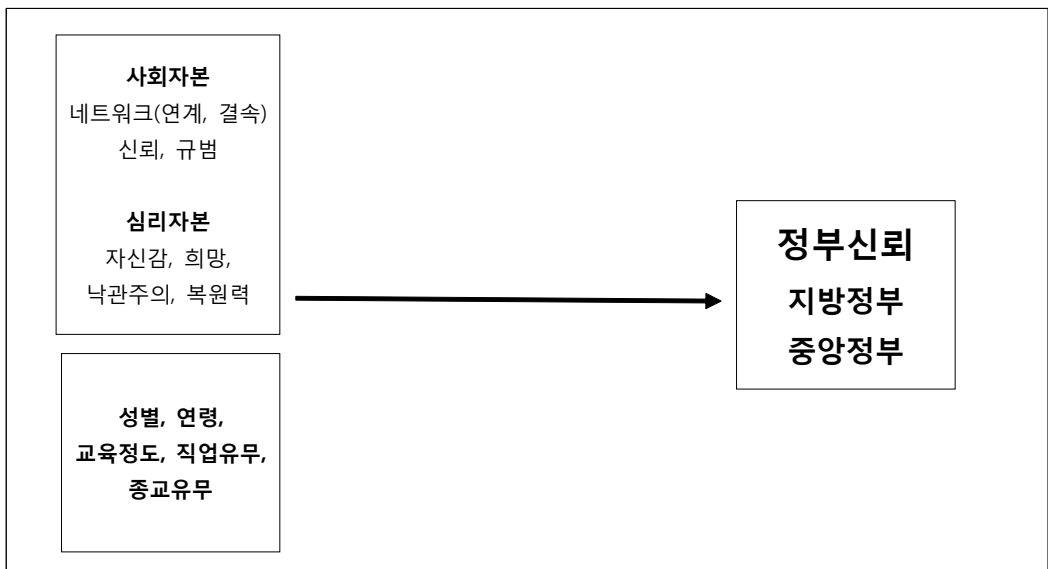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 본 것 과 같이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자본과 심리자본, 정부신뢰 간 관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대인신뢰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Levi, 1996; Montero, 1997; Uslanda, 2001; Boix an Posner, 1998; 이수인, 2010), 참여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Rothstein, 2001), 단체참여가 집단행동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을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민주주의 건설에 참여 하도록 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연구(Krishna, 2001)는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자본 개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이러한 차별적 특성이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원인을 찾는 것은 정부신뢰와 관련된 논의를 풍부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정부신뢰를 높이는 방법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리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유형별로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리자본의 각 유형이 정부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신뢰 간에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 3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제 1절 분석모형 및 가설

1. 분석모형

<그림 2> 분석모형



본 연구는 <그림1>과 같이 사회자본을 결속형 네트워크와 연계형 네트워크, 대인신뢰, 규범으로 구분하고, 심리자본을 자신감, 희망, 낙관주의, 복원력으로 조작화 한 후 이를 독립변수로 정부신뢰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 종교유무를 포함시켰다.

2. 가설설정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정부신뢰와 관련된 위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심리자본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신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의 하위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 심리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효과는 양면적일 것이다. 우선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은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타인이나 제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심리자본이 자신의 직무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상의 부가적인 일을 함을 뜻하는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이병철 외, 2009; Avery et al., 2009)를 바탕으로 추론해보면, 자신감, 희망, 복원력, 낙관주의와 같은 긍정적 심리상태는 타자 지향성(other-regarding ethos)을 제고시켜서 타인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고, 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연결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2: 사회자본 중 연계형 네트워크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사회자본 중 결속형 네트워크는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책의 수혜자 내지 고객에 머물렀던 시민의 위상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격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대응성(responsibilit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elson and Wright, 1995). 참여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참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높아져 정부를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견해(Citrin and Muste, 1999; Yang and

Holzer, 2006; March & Olsen, 1989; Norris, 1999; Kim, 2010)가 있는 반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정부를 불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Hetherington, 1998; 장수찬, 2002). 참여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연계형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러한 연유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늘어날 수 있는 반면, 배타적이고 내부지향적인 경향을 가지는 결속형 네트워크의 참여는 정부에 대한 평가에 있어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가설 4: 사회자본 중 대인신뢰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간 상관관계를 인정하는 견해(Levi, 1996; Montero, 1997; Uslaner, 2001)와 대인신뢰와 정부 신뢰 간 관계가 없다는 견해(Kolankiewicz, 1994; Whiteley & Seyd, 1997)가 상존한다. 타인에 대한 신뢰가 커질수록 정부의 개별 정책이나 법규를 신뢰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Brehan & Rahn, 1997)를 고려하면 대인신뢰가 높아지면 정부를 신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제 2절 변수선정 및 조작화

구체적으로 선정된 변수와 및 측정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정부신뢰이다. 정부신뢰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단일 문항을 사용하는 경우와 복수문항을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복수문항을 사용하는 경우의 예로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ANES)을 들 수 있다. ANES는 ①정부가 해야 할 옳은 일을 한다고 믿습니까?, ②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습니까?, ④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⑤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 5개 문항으로 정부신뢰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Hetherington(1998)은 ANES에서 마지막 문항을 제외한 4개의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김현구·이승중·최도립(2009)의 경우 업무성과, 공직윤리, 정치역량, 관리역량 4개의 요소 신뢰(각 요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단순종합신뢰(정부를 신뢰하십니까? 로 측정)로 구분하여 다차원적으로 정부신뢰를 측정하고 있다.

단일 문항으로 정부 신뢰를 측정하는 예로는 AsiaBarometer Survey(ABS)와 Eurobarometer survey를 들 수 있다. ABS의 경우 “당신은 중앙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로 정부신뢰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서울시 복지패널 설문은의 경우 단일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신뢰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각각 따로 측정하였다. 신뢰 정도는 “귀하는 다음의 각각 시설/기관/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로 설문하여 5점 척도에 의거 응답을 받았다. 이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당국(authorities)에 대한 신뢰가 아닌 통치체제(regime) 또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묻는 설문이다. 참고로 이 연구가 사용한 서울시 복지패널과는 달리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다.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응답자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현 정권에 대한 신뢰를 혼동할 수 있고,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신뢰를 물어보게 됨으로써 신뢰에 대한 성과 주의적 설명을 강조하는 편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Mishler & Rose, 1997; 박순애, 2006 재인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이 좀 더 객관적으로 정부신뢰 개념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한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복지 패널의 경우 지방정부 신뢰 설문이 일반적인 지방정부(강원도, 부산, 전라남도 등)에 대한 신뢰에 답한 것인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에 답한 것인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살고 있는 서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에 답한 것이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하려고 한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인 사회 자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의로 보아 네트워크, 신뢰, 규범으로 조작화 한다. 구체적으로 결속형 네트워크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참여로 연계형 네트워크는 취미나 운동모임 참여, 시민단체 또는 직업 직무와 연관 없는 단체 참여, 자선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참여 정도로 하며 리커트 5점 척도의 설문을 이용하여 응답을 받았다.

결속형 네트워크를 측정하기 위해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참여정도를 결합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세 변수 간 Cronbach's alpha 값이 0.776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세 문항을 가지고 '결속형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변수를 구성하는 것에 통계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계형 측정하기 위해 취미나 운동모임 참여, 시민 단체 및 직업 직무와 연관 없는 단체 참여, 자선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참여와 관련된 세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값이 0.672로 측정되어 마찬가지로 세 문항의 합계의 평균을 새로운 변수로 생성하였다.

또한 신뢰는 대인신뢰에 한정하여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설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를 묻는 문항이 없는 한계가 존재했고, 그나마 이 설문이 신뢰가 가진 호혜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규범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관련된 설문을 이용하였다. 사회자본연구에서 규범을 측정하는 양상은 공동체 의식, 공정성, 관용성, 공동체주의 등으로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자료의 한계 상 공정성 측면만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심리자본 측정과 관련하여 Luthans 외(2007)에 의해 사용된 PCQ(Psychology Capital Questionnaire) 설문문항들 널리 사용되어 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시 복지 패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검증된 PCQ의 설문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연구자의 판단 하에 이와 유사한 문항으로 심리자본의 측정 변수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신감은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자신감이 아주 많다.’ 두 설문 문항의 평균치로, 희망은 ‘내가 가진 문제가 많아도 모두 해결될 것이다.’로, 낙천성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로, 탄력성은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하는 편이다.’와

‘나는 도전을 받을 때 더 잘한다.’의 평균치로 측정하였다.

3. 통제변수

사회자본 이외에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연령의 경우 고연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높은 정부신뢰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박종민 외, 2011; Christensen & Laegreid, 2005; 박희봉, 2003)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연구(Uslander, 1999)도 있기에 포함시켰다.

한편, 성별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여성의 신뢰가 남성보다 낮다는 연구(Brewer & Sigelman, 2002)와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신뢰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박희봉 외, 2003) 있고, 종교 유무도 정부신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이승중, 2010)에 성별과 종교유무를 각각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그 밖에 학력, 취업상태 등 인구 사회적 특징들은 독립변수로서 통제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변수로 이용하여 종속변수들의 상대적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표 8> 변수 및 척도

구분	항목	측정지표		척도
종속 변수	정부 신뢰	지방정부 신뢰수준 중앙정부 신뢰수준		전혀 신뢰하지 않음 ~ 매우 신뢰함 (5점 척도)
독립 변수	사회 자본	네트 워크	결속형 네트워크 -동창회, 향우회, 중친회 참여	전혀 활동 하지 않음 ~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 (5점 척도)
			연계형 네트워크 -취미나 운동모임 참여 -직업 직무와 연관 있는 단체 참여 -자선단체나 문화예술단체 참여	
		신뢰	대인신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있다.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5점척도)
		규범	공정성 -우리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 어지는 사회이다 -우리 사회는 노력만 하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매우 동의함 (5점척도)
	심리 자본	자신감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나는 자신감이 아주 많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5점 척도)
		희망	-내가 가진 문제가 많아도 모 두 해결될 것이다.	
		낙관 주의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복원력	-나는 한번 마음먹은 일은 꼭 하는 편이다. -나는 도전을 받을 때 더 잘한다.	
통제 변수	성별(여=0, 남=1), 연령, 교육정도, 직업유무(없음=0, 있음=1), 종교유무(없음=0, 있음=1)			

제 3절 분석자료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는 2010년 서울시 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는 본 연구의 분석틀에 포함된 다수의 변수들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복지패널에서 설정한 패널 집단으로서, 2008년 11월부터 서울시 25개 구의 일반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이며, 표본의 크기는 7,000명이다. 표본은 층화 2단 집락추출(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을 통해 추출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90% 일반조사구에서 추출된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는 추출된 조사구 내의 가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서울시 복재패널 2차 본조사 가구원용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모든 항목에 불완전하게 기입한 설문지 자료 및 만 18세 이하 응답자 자료를 제외하고 총 6,304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 가구원 6,304명중 2,870명 (45.5%)은 남성, 3,434명(54.5%)는 여성응답자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10%가량 높았다. 응답자들의 연령은 15세부터 93세였으며, 65세 이상이 1,429명으로 22.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30대와 40대가 각각 1,176명과 1,178명으로 전체의 18.7%였다.

학력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생이 2,004명(31.8%)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이 1,997명인 31.7%이었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963명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하고 있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62.8%인 3,957명이 배우자가 있었고, 19.0%인 1,200명이 미혼이었다. 사별했다는 가구원도 568명인 9.0%였으

며, 이혼은 3.0%정도였다. 655명인 10.4%가 중위소득 50%이하였고, 1,327명인 21.1%가 중위소득 51-150%였으며, 중위소득 150%이상은 577명인 9.2%였다. 취업자 2,624명은 전체의 41.6%였고, 나머지 3,680명은 비취업자로 취업자보다 숫자가 많았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외지역 79명(1.3%)을 제외한 나머지 25개구에 2.5%에서 5.6%까지 분포되어 있다. 용산구가 156명으로 가장 작았고, 송파구가 356명으로 가장 많았다.

<표 9>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870	45.5	학력	초등졸 이하	963	15.3
	여성	3434	54.5		중학교 졸업	610	9.7
연령	18세 이하	404	6.4		고등학교 졸업	1997	31.7
	19-29세	773	12.3		전문대 졸업	468	7.3
	30대	1176	18.7		4년제 졸업	2004	31.8
	40대	1178	18.7		대학원 이상	262	4.2
	50대	911	14.5	개인소득	비취업자	3680	58.4
	60세-64세	433	6.9		중위소득 50% 이하	655	10.4
	65세이상	1429	22.7		중위소득 51~150%	1327	21.1
					중위소득 151%이상	577	9.1

제 4절 분석방법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사를 한 결과 VIF 값이 1.04에서 2.35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정부신뢰(지방, 중앙)

$$\begin{aligned} &= \alpha + \beta_1 \text{결속형 사회자본} + \beta_2 \text{연계형 사회자본} + \beta_3 \text{신뢰} + \beta_4 \text{규범} \\ &\quad + \beta_5 \text{심리자본} + \beta_6 \text{연령} + \beta_7 \text{교육정도} + \beta_8 \text{직업유무} + \beta_9 \text{종교유무} \\ &\quad + \beta_{10} \text{성별} + \varepsilon \end{aligned}$$

제 4장 분석결과

제 1절 기초통계분석

1. 각 기관별 신뢰도

먼저 각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각 기관별 신뢰 정도

기관	평균	표준편차
사회복지시설	3.29	0.720
시민단체	3.04	0.758
문화예술단체 (미술관, 박물관 등)	3.06	0.661
자선단체 (유니세프, 적십자 등)	3.47	0.733
교육기관	3.32	0.737
의료기관	3.41	0.746
종교기관	3.21	0.825
노동조합	2.75	0.784
정당	2.51	0.810
이익단체, 경제인단체 (의사협회, 변호사 협회, 전경련, 경총 등)	2.59	0.798
대기업	2.90	0.792
중소기업	2.98	0.744
중앙정부	2.91	0.785
지방정부(도, 시, 군, 구)	2.89	0.774
사법기관(법원 등)	2.90	0.791
언론기관	2.89	0.799

가장 높은 신뢰 정도를 보인 기관은 유니세프나 적십자와 같은 자선단체(3.47)였다. 자선단체 뒤를 이어 의료기관(3.41), 교육기관(3.32), 사회복지시설(3.29), 종교기관(3.21), 문화예술단체(3.06), 시민단체(3.04) 순으로 높

은 신뢰정도를 나타냈다. 한편, 정당(2.51)이 가장 낮은 신뢰정도를 기록했고, 이익단체 및 경제인 단체(2.59), 노동조합(2.75), 지방정부와 언론기관(2.89), 대기업과 사법기관(2.90), 중앙정부(2.91)가 비교적 낮은 신뢰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정부나 정당, 사법기관과 같은 국가기관 보다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자선단체와 같은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은 정부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자본 생성에 있어 “정부의 인위적인 노력보다는 건전한 시민사회에 의해 보다 용이하게 창출될 수 있다”는 측면(김태룡, 2006)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2. 성별에 따른 정부신뢰 정도

성별에 따른 정부신뢰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성별에 따른 정부 신뢰

	중앙정부신뢰				지방정부신뢰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남자	2.87	0.793	3.37	0.0008**	2.85	0.767	4.32	0.0000**
여자	2.94	0.777			2.93	0.779		

<표 11>에서 보듯이 성별에 따른 정부신뢰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중앙정부 신뢰의 경우 남자가 2.87, 여자가 2.94로 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며, 지방정부신뢰의 경우도 남자가 2.85, 여자가 2.93으로 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살펴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부신뢰에 긍정적이라는 연구(박희봉 외, 2003)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연령에 따른 정부신뢰 정도

<표 12> 연령에 따른 정부신뢰

	중앙정부신뢰		지방정부신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8세미만	3.01	0.726	2.98	0.702
18-29세	2.84	0.786	2.83	0.771
30대	2.75	0.795	2.75	0.781
40대	2.84	0.756	2.83	0.760
50대	2.95	0.733	2.94	0.729
60-64세	3.00	0.788	2.96	0.790
65세 이상	3.07	0.806	3.03	0.790

연령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30대 이후부터 대체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뢰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높은 정부신뢰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박종민 외, 2011; Christensen & Laegreid, 2005; 박희봉, 2003)와 같다. 본 연구가 사용한 서울시 복지패널 설문 당시인 2009년도의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사실과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사회적 통념을 고려해보면 이 결과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한편, 연령과 중앙정부신뢰와의 관계에서도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ANOVA 분석 후, Bonferroni 검정을 통해 살펴본 결과, 18세 미만 집단은 20대, 30대, 40대 집단과 유의미한 정부신뢰와 관련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18세~29세 집단은 60~64세 집단과 65세 이상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30대는 50대 이상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0대는 60세 이상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50대

는 65세 이상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 지방정부신뢰의 관계에도 집단 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중앙정부신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NOVA 분석후, Bonferroni 검정을 한 결과, 18세 미만 집단은 30대와 40대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18세~29세 집단은 65세 이상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30대 집단과 40대 집단은 각각 50대 이상 집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제 2절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과 중앙정부 신뢰와의 관계

통제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중앙정부신뢰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1차적으로 알 수 있고, 다중공선성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중앙정부신뢰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속형 네트워크, 연계형 네트워크, 신뢰, 규범, 자신감, 낙관주의, 복원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수들 간에는 결속형 네트워크와 연계형 네트워크 상호간 상관관계(0.72)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사를 한 결과 VIF 값이 1.07에서 2.45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3> 중앙정부 신뢰 상관관계 분석

	중앙 정부 신뢰	결속형	연계형	신뢰	규범	자신감	낙관 주의	희망	복원력
중앙 정부 신뢰	1								
결속형	0.04**	1							
연계형	0.05**	0.72**	1						
신뢰	0.1**	0.02	0.1**	1					
규범	0.14**	0.09**	0.13**	0.15**	1				
자신감	-0.07**	0.24**	0.15**	-0.33**	-0.1**	1			
낙관 주의	-0.02*	0.06**	-0.01	-0.35**	-0.12**	0.52**	1		
희망	-0.01	0.2**	0.16**	-0.25**	0.002	0.48**	0.33**	1	
복원력	-0.06**	0.24**	0.15**	-0.29**	-0.13**	0.7**	0.4**	0.46**	1

**는 $p < 0.01$, *는 $p < 0.05$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사회자본과 심리자본이 중앙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4> 중앙정부 신뢰 회귀분석

중앙정부신뢰		b	s.e	β	유의수준
사회 자본	결속형	0.019	0.017	0.02	0.256
	연계형	0.08	0.019	0.07	0.000**
	신뢰	0.093	0.012	0.09	0.000**
	규범	0.16	0.013	0.15	0.000**
심리 자본	자신감	-0.06	0.022	-0.05	0.007**
	낙관주의	0.018	0.016	0.01	0.276
	희망	0.019	0.015	0.01	0.196
	복원력	-0.017	0.02	-0.057	0.001**
통제 변수	성별	-0.034	0.02	-0.021	0.096
	연령	0.023	0.006	0.055	0.000**
	교육정도	-0.017	0.008	-0.03	0.031*
	취업상태	-0.028	0.021	-0.017	0.181
	종교유무	0.03	0.019	0.019	0.124
(상수)		2.26	0.09		
F		33.92			
Adjusted R ²		0.063			

**는 $p < 0.01$, *는 $p < 0.05$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먼저 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F값은 33.92($P < .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2 값이 0.063로 매우 낮아 설명력은 높지 않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종속 변수 값의 정확한 예측보다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성을 검증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만족스럽

지 못한 설명력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다.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결속형 네트워크의 경우 중앙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연계형 네트워크의 경우 중앙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beta=.07$)을 미쳤다(유의수준 $p<0.000$). 다시 말해, 연계형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할수록 중앙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연계형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러한 연유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연계형 네트워크가 사회자본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Putnam의 주장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가설 3의 가정과 달리 결속형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가설 3 기각). 유의하진 않았지만 결속형 사회자본의 참여도 중앙정부 신뢰에 미세하지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속형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실증한 다수의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대인신뢰와 관련하여 타인을 신뢰할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beta=.09$)으로 나타났다($p<0.000$). 이는 대인신뢰와 정부신뢰 간 상관관계를 실증한 다양한 연구들의 결과와 같다(Levi, 1996; Montero, 1997; Uslanda, 2001). 한편 호혜적 규범으로서 공정성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형성된 결과물을 치우치지 않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심리자본과 관련하여 자신감($\beta=-0.05$)과 복원력($\beta=-0.05$)의 경우 β 값을 보면 그 정도가 굉장히 미세하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

는 없지만 중앙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자본의 자신감과 복원력이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에 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신감이나 복원력과 같은 개인에 대한 신뢰가 정부와 같은 기관 내지 제도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인에 대한 심리적 확신이나 지지가 타인에 대한 신뢰,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기관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 간 차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성별의 경우 중앙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령은 중앙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정도는 미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가 늘어날수록 중앙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부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비판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승중(2008)의 연구결과와 달리 종교유무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절 사회자본 및 심리자본과 지방정부 신뢰와의 관계

통제변수를 제외한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인 지방정부신뢰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지방정부신뢰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속형 네트워크, 연계형 네트워크, 신뢰, 규범, 자신감, 낙관주의, 복원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상호 간 상관관계의 경우 결속형 네트워크와 연계형 네트워크 상호 간(0.72), 자신감과 복원력(0.7) 상호 간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이용하여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사를 한 결과 VIF 값이 1.07에서 2.45로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1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15> 지방정부 신뢰 상관관계 분석

	지방 정부 신뢰	결속형	연계형	신뢰	규범	자신감	낙관 주의	희망	복원력
지방 정부 신뢰	1								
결속형	0.04**	1							
연계형	0.06**	0.72**	1						
신뢰	0.11**	0.02	0.1**	1					
규범	0.12**	0.09**	0.13**	0.15**	1				
자신감	-0.07**	0.21**	0.15**	-0.33**	-0.1**	1			
낙관 주의	-0.03**	0.06**	-0.01	-0.35**	-0.12**	0.52**	1		
희망	-0.02	0.2**	0.16**	-0.25**	0.002	0.48**	0.33**	1	
복원력	-0.06**	0.24**	0.15**	-0.29**	-0.13**	0.7**	0.4**	0.46**	1

**는 $p < 0.01$, *는 $p < 0.05$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사회자본과 심리자본이 지방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지방정부 신뢰 회귀분석

지방정부신뢰		b	s.e	β	유의수준
사회 자본	결속형	0.006	0.017	0.006	0.707
	연계형	0.105	0.019	0.098	0.000**
	신뢰	0.103	0.012	0.10	0.000**
	규범	0.15	0.012	0.15	0.000**
심리 자본	자신감	-0.08	0.02	-0.06	0.000**
	낙관주의	0.02	0.01	0.02	0.086
	희망	0.02	0.01	0.02	0.096
	복원력	-0.043	0.02	-0.03	0.033*
통제 변수	성별	-0.045	0.02	-0.02	0.025*
	연령	0.12	0.005	0.03	0.000**
	교육정도	-0.03	0.007	-0.05	0.130
	취업상태	-0.03	0.02	-0.02	0.071
	종교유무	0.034	0.019	0.022	
(상수)		2.209	0.094		
F		36.03			
Adjusted R ²		0.067			

**는 $p < 0.01$, *는 $p < 0.05$ 의 유의수준을 의미함

먼저 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F값은 36.03($P < .000$)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2 값이 0.067로 매우 낮아 설명력은 높지 않지만 본 연구의 목적이 종속 변수 값의 정확한 예측보다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성을 검증하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만족스럽

지 못한 설명력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결속형 네트워크의 경우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연계형 네트워크의 경우 중앙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beta=.09$)을 미쳤다(유의수준 $p<0.000$). 다시 말해, 연계형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할수록 지방 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설 3의 가정과 달리 결속형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유의하진 않았지만 결속형 사회자본의 참여도 지방정부 신뢰에 미세하지만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신뢰와 관련하여 타인을 신뢰할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것($\beta=.10$)으로 나타났다($p<.000$). 한편 호혜적 규범으로서 공정성은 지방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심리자본과 관련하여 자신감($\beta=-0.06$)과 복원력($\beta=-0.03$)의 경우 β 값을 보면 그 정도가 굉장히 미세하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지방정부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의 경우 중앙정부신뢰와는 달리 지방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beta=-0.02$). 남자일수록 여자에 비해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 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에 대한 남녀의 호감도 차이가 지방정부신뢰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연령은 지방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정도는 미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연수가 늘어날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정부정책이나 사회문제에 비판적일 것이라는 일반적 논의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이승중(2008)의 연구결과와 달리 종교유무는 지방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7> 연구결과 요약

	사회자본				심리자본				성별	연령	교육	취업 상태	종교 유무
	결속	연계	신뢰	규범	자신감	낙관 주의	희망	복원력					
중앙 정부	×	○ (+)	○ (+)	○ (+)	○ (-)	×	×	○ (-)	×	○ (+)	○ (-)	×	×
지방 정부	×	○ (+)	○ (+)	○ (+)	○ (-)	×	×	○ (-)	○ (-)	○ (+)	○ (-)	×	×

연계형 네트워크, 대인신뢰, 공정성에 대한 규범, 연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심리자본으로서 자신감, 복원력 그리고 교육정도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신뢰 간 유일한 차이는 성별이었다.

제 5 장 결 론

제 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정부신뢰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본 연구는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연계형 네트워크는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결속형 네트워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계형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이러한 연유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인신뢰에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인 신뢰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Levi, 1996; Montero, 1997; Uslanda, 2001; Boix an Posner, 1998; 이수인, 2010).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고 이것이 정부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한편,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정부를 신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의 투명성 혹은 공직부패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서인석 외, 2013; Kim Soonhee 외, 2012)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심리자본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자신감과 복원력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회귀계수 값이 매우 작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론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심리자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라면 사회자본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이것이 타인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에가 강할수록 타자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되지만 보다 정밀한 설명을 위해서는 향후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통제변수와 관련하여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부를 신뢰하는 것으로,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정부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왔고,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정보다는 여성이 지방정부(서울특별시)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설문당시 서울 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의 남녀 간 호감도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신뢰 사이의 차이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서울에 국한해 있었기 때문에 오는 한계이므로 향후 전국적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 2절 이론적 · 실천적 함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 및 정부신뢰 연구와 관련하여 본 연구 결과는 심리자본과 같은 개인적 속성이 정부신뢰와 같은 기관 내지 제도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연구들은 개인이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대인신뢰), 개인이 타인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네트워크), 개인이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정부신뢰)와 같이 개인과 타자와의 관계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이 본인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개인과 제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인의 심리자본이 정부성과, 시민참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리자본이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사회자본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 개념을 좀 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한국행정학계의 논문들을 살펴본 결과가 말해 주듯 사회자본 측정은 연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특히 신뢰와 관련하여 대인신뢰까지를 사회자본으로 볼 것인지, 정부신뢰를 포함한 기관신뢰까지 사회자본으로 볼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경우는 대인신뢰만을, 국가나 지역단위로 사회자본을 측정하는 경우는 제도신뢰까지 포함하여 사회자본 구성요소로서 신뢰를 보아야 한다고 잠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연계형 네트워크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볼 때,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자발적 시민참여는 시민과 정부 간 불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높은 업적을 성취하는 민주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응성(responsiveness)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데(Putnam, 1993), 연계형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시민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불신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임으로써 굿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절차적, 분배적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과 정부신뢰의 양의 상관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성은 정부신뢰의 기본 토대이다. 공정성은 공직 부패와 동전 양면과도 같다. 공정하지 못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다면 부패가 만연하게 된다. 관료

들의 고질적이고 만성화된 부정부패는 정부불신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부패를 없앨 수 있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 3절 연구의 한계

아쉽게도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2010년 서울시 복지 패널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관한 신뢰가 서울 지역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지역 색이 그다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구별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차별성을 검증하려면 전국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후속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조사 당시 광역자치단체장인 서울 시장에 대한 신뢰로 받아드렸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신뢰라는 변수의 조작화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측정과 관련하여 사용한 설문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기존에 있는 서베이 설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인신뢰나 상호 호혜적 규범, 심리자본과 관련된 세밀한 측정에 한계가 존재했다. 구체적으로 대인신뢰의 경우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거나 의지할 사람이 있다.”로 대체했고, 심리자본의 경우도 기존 연구들에서 사용한 설문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설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정부신뢰와 관련된 설문이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는가”의 단일 문항을 사용하여 정부신뢰를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셋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심리자본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라면 사회자본은 타인에 대한 신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심리자본과 정부신뢰를 포함한 기관신뢰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자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심리자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혹은 심리자본과 정부신뢰와의 관계에

서 사회자본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용배. (2003). 지역사회 정체성과 사회자본 형성요인 분석. 「한국정책과 학회보」. 7(2): 189-215
- 강소랑 · 문상호. (2012). 가족관계 사회자본이 중 · 고령자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46(3): 271-289
- 곽현근. (2003). 동네관련 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259-285
- _____. (2007). 지역사회 사회자본에 미치는 동네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1(4): 59-87
- _____. (2007). 개인수준의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5-30
- 권영숙, 이영민. (2011).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 「지방행정연구」. 25(1): 137-156
- 권태형, 박종화. (2010).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97-116
- 기영화. (2013). 지방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사회적 자본 효과 탐색: 근거 이론. 「지방정부연구」. 17(1): 265-295
- 금현섭 · 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김관보, 채경진, 손호중. (2013). 지방정부 신뢰와 정책순응: 경기도정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4): 267-287
- 김구. (2012). 사회자본과 지식관리 활동 및 조직성과의 영향 관계에 관한

-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수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1(1)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6(6): 63-95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88.
- 김은희. (2011). 사회복지조직의 사회자본과 직무만족: 일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3(1): 371-400
- 김대욱, 이승중.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 김태영. (2006). 인터넷 가상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행정논집』. 18(4): 959-980
- 김동철, 김대건. (2012). 긍정조직행태 주요 요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 : 진성리더십, 심리적 자본, 심리적 주인의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 27-51
- 김명숙. (2004). 지역 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23-42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42(2): 67-88.
- 김시윤. (2008).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신뢰 변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0(4): 1049-1067
- 김주섭, 박재춘. (2013). 조직문화와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수준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3): 51-74
- 김태룡. (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40(3): 27-51.
- 김왕식 (2011)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14-161
- 김해룡, 정현우. (2013). 감성리더십이 긍정심리자본과 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0(3): 1-30
- 김현구·이승중·최도립. (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 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47(3): 1-24.
- 김형빈, 이진석. (2010). 부산지역 화교의 사회연결망 특성변화와 사회자본의 형성. 「지방정부연구」, 14(4): 129-148
- 김형주, 유태용. (2013). 직무과부하가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와 성격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6(1): 317-340
- 남궁근. (2007). 사회자본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 13(4): 297-325
- 도수관. (2012). 지식정보사회에서 사회자본과 창의적 기업가정신과의 관계: 젠더, 교육수준, OECD 회원국 여부에 따른 집단구분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357-338
- 문유석, 허용훈. (2008). 사회적 자본이 적극적 경찰활동에 미치는 영향: 경찰관의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3): 55-75
- 민기. (2006). 사회적 자본의 정책 영향: 제주도 감귤 생산자간 협약이행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0(3): 7-24
- 박규동·안도경. (2012). 사회적 자본과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 「정부학연구」, 18(1): 23-53
- 박영미. (2009). 조직성격유형과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 「

- 한국행정학보」. 42(1): 121-144
- 박종민. (2003). 사회자본과 민주주의-집단가입, 사회신뢰 및 민주시민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9(1): 120-153
- 박종민·배정현. (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117-142.
- 박정훈·신정희. (2010). 정부신뢰, 정책효능성, 정책지지간의 연관성 실증연구: 주거지역내 CCTV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8(3): 1-24.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우리나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0(2) : 73-97.
- 박통희. (1999)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한국행정학보」. 33(2) : 1-17
- _____. (2004). 情, 가족주의 그리고 대인간 신뢰: 한국 중앙정부 사례. 「한국행정학보」. 38(6): 23-45
- _____. (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어떤 가치관과 단체참여가 사회적 자본을 배태시키나?. 「한국행정학보」. 44(1) : 67-97
-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 연구」. 8(2): 5-45
- _____. (2002). 조직 내 사회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6(1): 221-237
- _____. (2004).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시론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8(4): 317-334
- 박희봉, 신중호, 황윤원. 2013. 정부신뢰의 요인 -정부정책인가? 정치태도인가?-. 「한국정책학회보」. 22(1): 465-491

- 박희봉, 이희창. (2010). 사회자본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한·중·일 3국민의 시민의식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1-29
- 박희봉·강제상·김상묵. (2003). 조직 내 사회자본과 지적 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관리에 대한 효과. 「한국행정연구」. 12(1):3-35.
- 박희봉·김명환. (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 박희봉 · 이희창 · 조영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 박희봉 · 이희창 · 강제상 · 강휘원 · 남창우 · 임명수 · 전지용 · 김태순 · 전경일. (2008). 가족사회자본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일 양국간 비교 분석. 「한국행정연구」. 17(1)
- 박희봉·강제상·김상묵. (2003). 조직내 사회자본과 지적 자본의 형성 및 조직성과관리에 대한 효과. 「한국행정연구」. 12(1):3-35.
- 배귀희·김영환. (2006). 사회자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Burt의 구조적 공백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1-32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18(4): 61-92.
- 배병룡. (2005). 공공조직 사회자본의 영향요인과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4): 49-74
- 배유일. (2004). 국가, 정책 및 사회자본: 사회자본에 대한 제도적 접근. 「한국정책학회보」. 13(4): 131-156
- 배응환. (2002).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정책. 「정부학 연구」. 8(2): 216-252
- 배정현. (2013). 시민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른 정부신뢰: 아시아 국가를

- 중심으로. 「행정논총」. 51(3): 167-197
- 서인석, 박형준. (2012).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신뢰와 공직부패와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1(3): 291-324
- 서진완, 박희봉. (2003). 인터넷 활용과 사회자본: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1): 27-49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방안. 「지방행정연구」. 18(2): 67-91
- 손호중 ·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부안군 원전 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보」. 39(3): 87-113
- 송건섭. (2009). 지역사회참여와 사회자본이 시민접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99-121
- 송경재. (2008). e-사회적 자본으로 분석한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의 가능성과 한계 - 남양주 <화도사랑>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2(2): 271-301
- _____. (2006). 한국의 지역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별 변화와 특성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0(3): 133-164
- 안성호, 곽현근. (2002). 동네 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4): 205-230
- 양필석, 최석봉. (2012). 임파워링 리더십이 심리적 자본과 조직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9(2): 63-81
- 오수길 · 광병훈. (2004). 사회자본-정부-거버넌스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모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사적 분석을 사례로. 「한국행정학회보」. 38(6): 226-245
- 오은혜, 탁진국. (2012). 경력계획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긍정

- 심리자본의 매개효과와 미래시간전망과 코칭리더십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5(4): 727-748
- 유재원. (2000). 사회자본과 자발적 결사체. 「한국정책학회보」. 9(3): 23-43
- 윤두섭, 오승은. (2007).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45(1): 165-192
- 이동섭, 최용득. (2010).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 연구」. 39(1) : 1-28
- 이곤수 · 송건섭. (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 이명석 · E 오스트롬 · J 워커. (2004). 제도, 이질성,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동가능성. 「한국행정학보」. 38(1): 1-21
- 이병철, 이채익. (2009). 지방공무원의 심리적자본이 직무만족과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3(3): 67-87
- 이수인. (2013). 정부신뢰에 대한 정치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효과 비교와 관계성의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9(2): 195-239
- _____. (2010). 일반신뢰와 정부신뢰의 관계와 성별 차이에 대한 탐색적 연구. 민주화를 향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 및 정보의 매개 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4(4) : 162-203
- 이숙종·김희경·최준규. (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무원과 시민단체 직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 이숙종·유희정. (2010). 개인의 사회자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4(4): 287-313
-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

- 이인자, 한세희, 이희선 (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179-212
- 이양수. (2006). 한국적 사회자본이 주민의 정치참여행태에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10(3): 25-43
- 이창기, 박종관. (2005). 도시기역 사회자본의 실태와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2): 191-210
- 이창기. (2004). 사회자본형성을 통한 교육공동체 협력증진 방안.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5(1): 435-448
- 이철희, 신광현, 허창구. (2013).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25(1): 147-169
- 이현우, 이지호, 한영빈 (2009). 사회자본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5(2): 149-175
- 이희태. (2012).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6(3): 69-89
- 이희창, 박희봉, 전지용. (2008). 사회자본이 집단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51-76
- 이희창, 박희봉. (2007). 지방정부 조직성과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 사회자본의 영향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1(3): 127-151
- 이현우. (2002). 인터넷과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선거참여. 「한국정치학회보」, 36(3): 309-331
- 이현우, 이지호, 한영빈 (2009). 사회자본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45(2). 149-171

- 이혜림, 백윤정, 김은실. (2013). 긍정심리자본과 개인 창의성의 관계 -정서와 인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0(2): 145-168
- 임경수. (201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 운동. 「지방행정연구」, 26(3): 27-58
- 임승빈, 이승중. (2005). 지방정부 역량과 자치구의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 서울시 12개 자치구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19(3): 3-26
- 유민이, 문상호, 이숙중. (2012). 사회자본의 정부성과인식에 대한 영향: 시민참여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4): 111-145
- 유현숙. (2005). 여성자본의 실태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여성의 인적 자본, 사회자본, 심리적 자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여성연구」, 44(3) : 225-259
- 장지선, 탁진국. (2013). 긍정심리자본, 학습목표지향성, 리더의 비전제시가 정서적 조직변화몰입에 미치는 영향: 변화 이점, 조직냉소주의 조절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26(1): 1-25
- 장호석, 하현상. (2013).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거버넌스 채택에 대한 신뢰와 제도의 영향 -미국 플로리다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1): 517-551
- 전기우·윤광재. (2011). 복지전담인력의 사회자본, 지적자본, 직무성과간 영향관계분석. 「행정논총」, 49(2): 205-234
- 전대성·권일웅·정광호. (2013).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2(2) : 181-206

- 전성훈. (2010). 사회자본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은평구 15개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2): 63-92
- 전오진, 남상화. (2009). 공직사회의 사회자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3): 1-22
- 정광호 · 이달곤 · 하혜수. (2011). 지방정부 신뢰요인의 탐색. 『한국행정학보』. 45(4): 181-201.
- 조기숙 · 남지현. (2007).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부신뢰: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3(2): 61-92.
- 진관훈. (2012).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본 증대 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6(3): 395-412
- 최연태. (2012). 마이크로블로그의 정치적 이용이 참여적 사회자본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6(1): 297-329
- 최영출. (2004). 지역의 사회자본측정지표 설정. 『지방정부연구』. 8(3): 119-144
- 최용득, 정홍준, 이동섭. (2012). 리더의 유머사용과 구성원의 성과 및 행복: 리더신뢰의 조절효과와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경영학연구』. 41(3): 575-605
- 한세희·김연희·이희선 (2010).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 한정희. (2009).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정책 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본 기업특성과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 중심으로. 『행정논총』. 47(2): 253-280
- 황영호, 박종관. (2004). 충청 · 호남지역의 사회자본의 실태와 형성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4): 183-209
- 허용훈. (2007). 사회적 자본과 지역경찰활동의 성과: 경찰관의 인식을 중

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1(4): 87-111

허철행, 허용훈. (2007). 한국 사회자본의 한계와 전망. 「한국행정논집」.
19(1): 151-171

현승숙·이승중. (2007). 주민접촉에 따른 지방정부의 신뢰.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19(4): 93-112.

해 외 문 헌

- Andrain, Charles F., and James T. Smith. (2006). Political Democracy, Trust, and Social Justice.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Bok, Derek. (1997).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In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edited by Joseph S. Nye,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55 - 75.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oix, C., Daniel N Posner. (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 No 4. 686-693.
- Brehm, John & Wendy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Brewer, P.R., & Sigleman, L. (2002). Trust in Government: Personal Ties that Bind? *Social Science Quarterly*, 83(2): 624-631.
-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73-988.
- Citrin, J. & Green, D. P.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4):431-453.
- Citrin . J. & Luks, S. (2001). Political Trust Revisited: Deja Vu All over Again? In J. R. Hibbing & E. Thiss-Morse(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eman, J.S. (1993). The Rational Reconstruction of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1): 1-15.
- _____.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 95-120.
- Cook, Fay L., Lawrence R. Jacobs, and Kim Dukhong. (2010). Trusting What You Know: Information, Knowledge, and Confidence in Social Security. *Journal of Politics* 72(2): 397 - 412.
- Christensen, T., & Lægreid, P.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4): 487-511.
- Dalton, Russell J. (2000). Citizen Attitudes and Political Behavior.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3(6/7):912-940.
- Della Porta, Donatella. (2000). Social Capital, Beliefs in Government, and Political Corruption. In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edited by Susan Pharr and Robert D. Putnam, 202 - 28.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kuyama, Francis.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m, Soonhee, Jooho Lee. (2012). E-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2(6): 819 - 828

- Kim, Soonhee. (2009). Management Strategy for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Transparency in Local Governance. Seoul: United Nations Project Office on Governance.
- _____. 2010. Public Trust in Government in Japan and South Korea: Does the Rise of Critical Citizens Matt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5): 801 - 10.
- Knack, S. & Keefer, P.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 Knack, S. (2002).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772-785.
- Kolankiewicz, G. (1994). Elites in Search of a Political Formula. *Daedalus*. 123(3): 143-157
- Lawrence, R. (1997). Is It Really the Economy, Stupid? In Joseph S. Nye,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Chapter 4.
- Levi, M., & Stoker, L.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 475-507.
- Levi, Margaret. (1998). A state of state In V. Braithwaite and Margaret Levi(eds.). Trust and Governance. New York : Russell Sage.
- Luthans, F. (2002a).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 Executive*, 16(1): 57–75.
- _____. (2002b).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 695–706.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 541–572.
- Luthans, F., Avey, J. B., Avolio, B. J., Norman, S. M., & Combs, G. M. (2006). Psychological Capital Development: Toward a Micro-intervention.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7: 387–393.
- Luthans, F. & Avolio, B. J. (2003). Authentic Leadership: A Positive Developmental Approach. In K. S. Cameron, J. E. Dutton, & R. E. Quinn(ed.). *Positive Organizational Scholarship*, San Francisco: Barrett-Kochler.
- _____. (2009). The “Point”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30: 291–307.
- Luthans, F., Luthans, K. W., & Luthans, B. C. (2004).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 Luthans, F., Norman, S. M., Avolio, B. J., & Avey, J. B. (2008).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in the Supportive Organizational Climate–employee Performance Relationship.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9(2): 219–238.
- Luthans, F. & Youssef, C. M. (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 143-160.
- _____. (2007). Emerging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Management*, 33: 321-349.
- Luthans, F., Youssef, C. M., & Avolio, B. J. (2007). *Psychologic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er, A. H.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Miller, A. H. and Borrelli, S. A. (1991). "Political Parties and Confidence in Government: A comparison of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3): 357-386.
- Miller, A. H., Goldenberg, E. & Erbring, L. (1979). "Type-Set Politics: Impact of Newspapers on Public Confid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1): 67-84.
- Miller, A. & Listhaug, O. (1999). Political Performance and Trust. In Pippa Norris.(ed). *Critical Citizens*. 204-2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orgeson, Forrest V., III, David Van Amburg, and Sunil Mithas. (2011). Misplaced Trust? Exploring the Structural of the E-Government - Citizen Trust Relationship.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21(2): 257 - 83.
- Nelson & C. L. Cooper(ed.). *Positive Organization Behavior*,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Critical Citizens*:

-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edited by Pippa Norris. 169 - 8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Neill, Onora. (2002). *A Question of Trust: The BBC Reith Lectures 200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Civic Disengagement in America*. New York : Simon and Schuster.
- Schuller and Field. (2000).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ajkovic, A. D. & Luthans, F. (1998a).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 240-261.
- _____. (1998b). Social Cognitive Theory and Self-efficacy: Going beyond Traditional Motivational and Behavioral Approaches. *Organizational Dynamics*, 26: 62-74.
- Seligman, Martin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 Free Press.
- Seligson, Mitchell. (2002). The Impact of Corruption on Regime Legitimacy: A Comparative Study of Four Latin American Countries. *Journal of Politics* 64(2): 408 - 33.
- Sztompka, Piotr. (1996). Trust and Emerging Democracy. *International Sociology*. 11(1): 37-62.

- Tocqueville, Alexis de. (1984). *Democracy in America*. renewed by Richard D. Heffner. New York: Penguin Books.
- Traits, M. (2006)“. Making Democracy Work More? Exploring the Linkage between Social Capital and Government Performa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9, No 2. 211-225.
- Uslaner, E. M. (2001). Is Washington Really the Problem? In John Hibbing and Elizabeth Thiess-Morse. (eds.).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118-13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Democracy and Social Capital. In Mark E. Warren (ed.): *Democracy and Trust*. 121-1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 Verban,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 nation compari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ba, Sidney., Ka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Welch, Eric W., Charles C. Hinnant, and M. Jae Moon. (2005). Linking Citizen Satisfaction with E-Government and Trust in Govern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5(3): 371 - 91.
- Whiteley, Paul & Seyd, Patrick. (1997). *Political Capital Formation*

Among British Party Members. in J. van Deth(ed.), *Private Groups and Public Life: Social Participation, Voluntary Associations and Political Involvement in Representative Democracies*. London: Routledge.

Yang, Kaifeng, and Marc Holzer. (2006). The Performance - Trust Link: Implication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1): 114 - 26.

Youssef, C. M. & Luthans, F. (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Work 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y. *Journal of Management*, 33: 774-800.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capital on Trust in Government

Kim, Taek-Ho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Master of Public Policy

Seoul National University

Appropriate level of distrust in government can be a good stimulus to people governing the nation. However, inordinate distrust in government makes government spend unnecessary amount of time and money. Decreasing distrust in government and recovering confidence of people are prerequisites of successful national public management. For those reasons, it is crucial for government to know what factors affect trust in government and how they work for public well-being.

Trust in government gives government democratic legitimacy. In addition, it decreases transaction costs when policy decision making take place. Furthermore it reduces the level of corruptions and induces voluntary compliance of people.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that show what factors affect trust in government. However, they have not focused on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psychological capital. Psychological capital is made up of confidence, optimism, hope and resilience. We cannot find researches that concentrate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on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social capital is a appropriate concept to explain social relation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According to Putnam, social capital consists of networks, trust, and norm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as independent variables affecting trust in government.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social capital on trust in government, this research employed a T-test,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 survey data carried out by Seoul Metropolitan in 2010.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confidence and resilience of psychological capital have adverse effects on people's trust in government. As the coefficient value is very small,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results are strongly confidential. However, bridging networks have positive effects on trust in government. It means that people take more interest in public policy process and social issues by participating bridging networks. which in turn leads to high level of trust on government. Moreover, trust toward other peopl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trust in government. It shows that active participation induces confidence within people as well as bring about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justice of policy making has a positive impact on the trust in government. Finally, we cannot find different influence of independent variables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on trust in government.

In spite of these findings, there are some limitations regarding data and survey questions that this research used. Therefore, future researches on trust i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reinforce these

problems.

Key words :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capital, trust in
government, networks, trust

Student number : 2011-23897